

Neighbourhood
Regeneration
with Youth
in communities

동네청소년과
함 께 하 는
마 을 재 생

박성남·김민경

2 0 1 7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eighbourhood
Regeneration
with Youth
in communities

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박성남 · 김민경

2 0 1 7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eighbourhood
Regeneration
with Youth
in communities

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2017

C o n t e n t s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의미를 생각하다._01

동네청소년의 이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

동네청소년과 마을재생을 연결하다._15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마을재생의 참여주체로서 청소년의 가능성

마을재생과 동네청소년의 연계

동네청소년의 작은 움직임,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다._37

청소년의 황금시대

동네청소년과 동네삼촌의 만남

지역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

동네청소년의 플랫폼 ‘달그락달그락’

마을청소로부터 시작한 활동

학생의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공헌의 연계

Young Lambeth 협동조합이 함께하는 마을재생

학생의, 학생을 위한 마을, 가나자와

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을 꿈꾸다._81

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기본방향

기본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나가며

들어가며,

2017년도 새정부가 출범함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적 아젠다로서 도시재생의 저변을 넓히고 연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이라는 재정투자를 통해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합화하여 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게 지원·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주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을 추가하여 사업유형을 재편하여 마을단위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주민과 조직을 발굴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지역의 현안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조직 및 인력발굴에 대한 중요성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아직 마을재생의 사업추진 동력인 지역사회의 실행주체 대한 발굴 및 조직과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소도시일수록 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기적 배경 하에 도시공간재창조센터의 ‘함께하는 마을재생’ 시리즈는 지역에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과 그 결을 함께하고 있다. 2016년도 지역어르신에 이어 2017년도에는 그간 주요한 실행주체로서 인식이 부족했던 동네청소년을 주제로 마을재생에서 이들의 역할 및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과 마을재생을 연계 시행할 수 있는 국내외 정책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발성 프로젝트부터 중앙부처 지원사업까지 청소년을 실행주체로 하는 국내외 마을재생 사례를 통해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동네청소년과 마을재생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추후 확산되고 있는 마을재생 현장에서 청소년을 주요 실행주체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발간물을 통해 청소년이 마을재생의 주요 실행주체로서 가진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7.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PART

01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의미를 생각하다



01_동네청소년의 이해

변화하는 사회와 동네청소년

청소년이란 통상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시기를 의미한다. 삶에 대해 반항을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며, 반대로 삶의 꿈과 희망을 그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만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 시기에는 주어진 길을 따르는 것보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삶의 태도와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사회는 과거의 경쟁체제에 머물러 학습이라는 정해진 길로 유도할 뿐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 참고하세요

[청소년의 정의]

- 청소년은 청년과 어린이의 중간시기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으로 정의
- 국내 청소년의 경우 근거법에 따라 연령의 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음
- 본 단행본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13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진행

[현행법상 청소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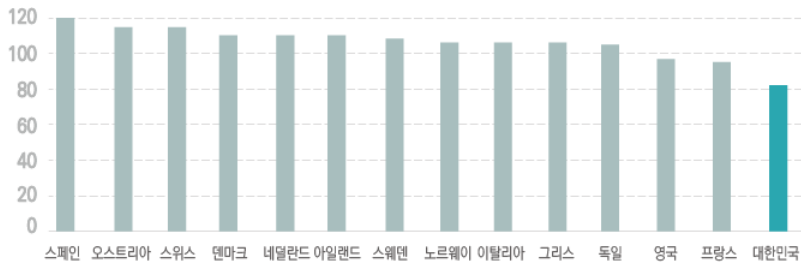
용어	근거법	정의
청소년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인 자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	19세 미만인 사람
	소년법	19세 미만인 자

행복하지 않은 동네청소년

2016년도 제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경제수준과 물리적, 보건, 안전, 교육적 환경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최하위이며, 삶의 질은 OECD 국가 최하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이러한 비율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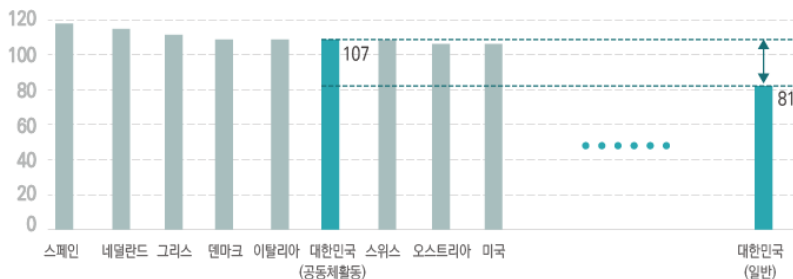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동체(동아리 등)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본인 삶의 주인의식과 공동체 함양이라는 측면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성을 인정받고 각자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간 및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시켜주고 가족과 지역 내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일반청소년)]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언론홍보, 유니세프 행복지수 모델 5개 중 주관적 행복 부분 조사 결과 참조)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공동체활동경험 청소년)]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유니세프 행복지수 모델 5개 중 주관적 행복 부분 조사 결과 참조)

도시의 쇠퇴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 그리고 도시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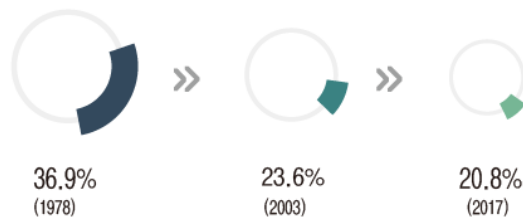
노령화지수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장래에 생산연령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을 의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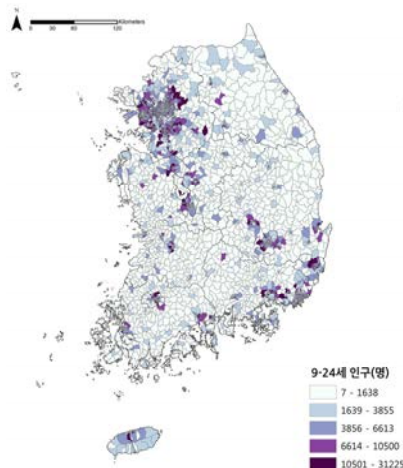
현재 도시의 3분의 2이상이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의 도시 쇠퇴문제에 처해있으며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2012년도 76.1%에서 2017년도 104.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도 연계된다.

청소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및 광역시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을 중심으로 인구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청소년 인구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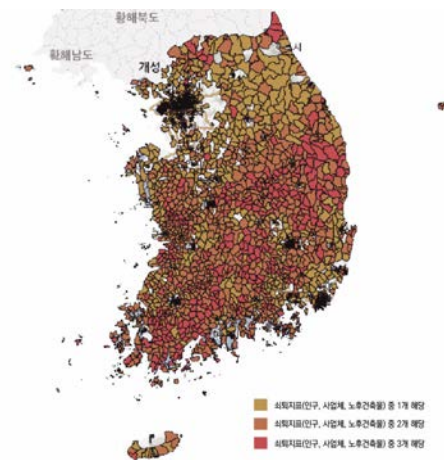
[전국 청소년인구(9-24세) 비율]

(출처 : e-나라지표)



[읍면동 별 청소년(9-24세) 인구 전국분포]

(출처 : 서수정 외, 2015)



[전국 도시 쇠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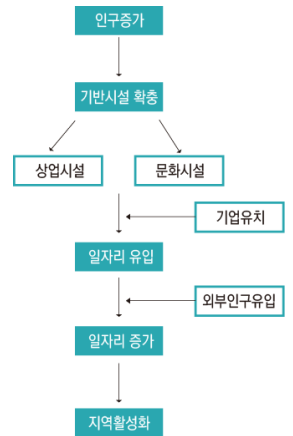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지역의 인구분포는 도시 내 생산가능 인구(만 15세~64세)를 가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입인구가 많고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시는 활력을 띠고 반대의 경우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및

일자리 등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그 도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이는 결국 또 다른 인구의 유출을 야기하게 되므로 향후 도시의 쇠퇴로 인해 직면하는 위기를 타개하고 내적인 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인구유출

인구유출에 대한 문제는 최근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단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결국 지역 활력 저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일자리, 문화·복지혜택 등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인구이동 및 감소 배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서울과 지방중소도시(영주시, 공주시)의 인구 전출·입 변화를 통해 해당 상황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인구증가와 지역활성화의 연계]

(출처 : 마강래 2017)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및 2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의 인구이동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조사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의 인구 유입량이 유출 인구수에 비해 다소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각자가 희망하는 다양한 문화와 복지, 상업 등의 활동이 벌어지기를 희망하고 또한 이를 충족시켜주고 일자리가 증가할 경우 인구유입이란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마강래, 2017)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권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서울 청소년 및 25세 이상 29세 이하 등 젊은 층의 인구 이동 변화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서울시 청소년 및 29세 이하 인구 전출입 변화 그래프



[서울특별시 청소년 및 29세 이하 인구 이동]

(출처 : 통계청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영주시와 공주시의 청소년 및 25세 이상 29세 이하 인구 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들여다 본 서울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 해당되는 이 두 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량에 비해 유출량이 더 높게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를 지나 사회 활동의 첫 시작을 맞게 되는 25세 시점에서 인구 유출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도시 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향후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주시 청소년 및 29세 이하 인구 전출입 변화 그래프



공주시 청소년 및 29세 이하 인구 전출입 변화 그래프



[영주시/공주시 청소년 및 29세 이하 인구 이동]

(출처 : 통계청 시군구/성/연령별 이동자수)

도시를 성장시키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은 결국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 현된다. 그렇기에 향후 도시를 성장시킬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 계층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려는 초년생의 정착 및 유입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여 진다.

02_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한계

지역사회는 그간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해 오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청소년을 수동적 참여대상,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 또는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관리가 소홀한 지역의 유희 공간 및 빈집을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활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인식과는 반대로 정부의 청소년 지원 범주가 보호가 필요한 복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사업의 주체로 정책사업 및 활동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청소년이 지역의 가능성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고자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하세요

[빈집, 불량 청소년 탈선장소 전락]

원주시 태장동 국민 임대 주택단지가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21일 태장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부터 LH공사가 부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착공시기와 회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수개월째 철거도 하지 않은 빈집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철거가 안 된 건물에는 노숙자와 청소년들이 밤마다 몰려들어 술판을 벌이는 등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붕괴위험까지 있어 자칫 인명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 임대 주택단지 인근에는 초·중학교는 물론 아파트 단지까지 모여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많지만 빈 집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밤길 성폭행 사고 등 치안사고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신 모(53,태장동)씨는... “불량청소년과 노숙자들이 빈집으로 몰려와 불장난을 하고 술판을 벌이는 등 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지자체와 사업자측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0.07.22., <http://www.kado.net/news/articlePrint.html?idxno=473772>)

새로운 지역사회의 가치 : 공동체

공동체(communit)는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 공동의 관심 및 가치관과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적·지역적 단위를 일컫는다. 마을재생에서의 공동체는 일정시간 같은 생활영역에서 거주 또는 기반을 둔 주민 간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이들은 사회적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진은애 외 2인, 2016)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익명성의 확대, 경쟁체제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협력, 연대성과 같은 집단적 가치의 결핍(강현주 외 1인, 2015)으로 인해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과 커뮤니티 회복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때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확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며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접해볼 수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될 것이다. (강가영 외 1인, 2013) 청소년은 참여활동을 통해 참여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고력 등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사회적 협력이나 공익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킨다. (박가나, 2009)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환경과 관련된 공공의 의사결정 또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공동체 참여활동은 학교의 자치활동이나 교내 동아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학교 밖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사회단체 조직 및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든 자발적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 참여활동은 주로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을 통해 활동하므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질적인 측면의 만족도와 더불어 사회적 연대감 및 유대감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 이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청소년 공동체 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이 많이 부여될수록,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활동 형태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이 긍정적(박가나, 20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활동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도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오프라인 내에서 물리적 공간, 촉진자, 지원조직단체, 지속수단 등 지역사회와 연계가능한 각 요소를 발굴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참여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적 소속감 부여 및 심리적 만족감 제고 등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지역 애착심과도 연계된다. 최근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공유주거, 사회적경제조직 등 새로운 공공을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적 움직임의 시도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는 '신뢰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관계 맺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특히 일상과 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측면이 강하다. (류태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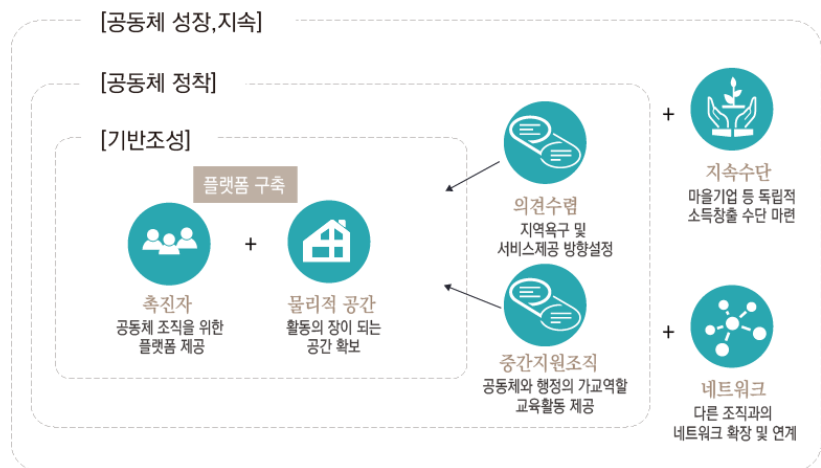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한 인력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쇠퇴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청소년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체 형성 : 가능성과 필요요소

청소년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SNS 등의 홍보매체에 능숙하며 활동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있어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추진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반한 사업은 실행할 수 있으나, 주체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체계적인 조직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실질적 참여와 인식개선, 참여과정 속 민주성 확보 및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박세정, 2007)이나,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내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화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동체를 조직하는 촉진자(조직)와 물리적 공간을 통한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며 이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연계한 활동과 교육을 연계해 줄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 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운영체계가 필요하고, 다른 지역사회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위한 필요요소]

(출처 : 행정자치부(2017) 호남권 「공동체지역네트워크포럼집」 참조 재작성)

★ 참고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조직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요소]

- (물리적 공간) 저이용 공공청사, 빈집, 빈 점포, 폐교 등의 정비를 통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제공 가능하며, 이외 지역 내 위치한 청소년 시설(청소년 문화의집, 지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제공 가능
- (촉진자) 청소년 스스로 조직화 하거나 교육기관의 선생님, 지역 내 청소년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조직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조직화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 내 기존 동아리 조직을 활용하거나 참여의사를 수렴한 조직화 방안 등이 있음
- (중간지원조직)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 내 조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조직 또는 NPO와 같은 비영리조직 등의 활용 가능
- (지속수단) 지역사회와 선순환 될 수 있는 청소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방안 마련 가능
- (네트워크) 청소년의 경우 직업을 찾아나가는 시기로 이들의 관심사와 연계하여 지역 내 전문 인력 및 타 지역 유관조직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할 시 지속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음
- (의견수렴) 조직화하기 이전 청소년에게 관심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이를 활동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조직의 활동 및 참여방식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이다. 청소년 활동 및 참여에 대한 개념으로 R.Hart(1997)는 자신의 삶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단계에 따른 역할 및 활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단계의 어른이 주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단계의 활동부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단계부터 3단계의 참여방식은 단순 참여 가능한 일회성 프로젝트의 참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발생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비형식

적 교육기관(nonformal education)에서 운영되기에 규정이나 원칙 등으로 인한 획일성과 경직성을 띠게 되어 1~3단계의 참여로 볼 수 있으며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발생한다.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

단계	참여 단계 구분	내용
Phase 1	이용되는 단계 Manipulation	문제의 내용이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함
Phase 2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 Decoration	관련된 주장이나 내용이 담긴 의상을 입혀 성인이 이용
Phase 3	명목적 참여 단계 Tokenism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나, 토의주제선정, 발표 형식이 제한되며, 의견협의 기회 없음
Phase 4	정보를 제공받으나 지시 받는 단계 Student Informed	진정한 참여를 위해 질문을 준비
Phase 5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에 참여하는 단계 Student Consulted	성인의 활동에 자문관으로 참여하여 활동과정을 이해하고 청소년 의견 수렴·평가
Phase 6	어른이 주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단계 Student/ Adult Equality	의사결정 과정과 협동적인 작업 등의 능력을 배양
Phase 7	활동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단계 Completely Student- Driven	활동을 기획하고 역할을 수행하나 지역사회 활동 시 어른에 의한 지도 수반
Phase 8	어린이가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단계 Student/ Adult Equity	성인과 청소년이 적절한 비율로(4:6, 2:8 등) 서로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청소년은 성인의 전문성을 배우면서 프로젝트에 결정권을 가지는 과정

※ 출처 : Roger Hart(1997) children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th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Earthscan; UK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

구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의
Larson (2000)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조직 및 자발적이고 구조적인 청소년을 위한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
Pittman (2000)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research-based) 일련의 통합적, 경험적과정을 의미
Berson & Pittman (2001)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
R.Hart (1997)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포괄하여 의미
전명기 (2006)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오해섭 (2008)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민역량, 문화적 역량, 인지적 역량, 직업적 역량 개발을 의미
문성호 (2009)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발적이며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실천적인 활동
권일남 (2010)	생애발달과정의 한 단계인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활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비조직적 활동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내외적 역량을 발전시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갖추는 것

※ 출처 : 권일남, 최창욱(2011),「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작성

이외에도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참여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신체적 발달’, ‘지식의 확장’, ‘심리 및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등 4가지 주제의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2) 결국 앞서 4가지 주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경험은 협업의 기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다양한 범주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청소년 개인이 사회적 자산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얻는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경험을 제공한다.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촉진하는 개인 및 사회적 자산]

주 제	내용
신체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건강 습관 - 건강상의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지능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스킬에 대한 지식 - 필수적인 직무 능력의 지식 - 학업 우수 - 마음의 이성적인 습관: 비판적 사고와 추론 능력 - 하나 이상의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 좋은 결정을 내리는 기술 -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심리 및 정서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포함한 좋은 정신 건강 - 정서적 자기 통제 능력 - 훌륭한 대처 능력 - 좋은 갈등 해결 기술(능력) - 탁월한 동기 부여와 긍정적인 성취 동기 -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 - 계획 능력: 미래의 삶을 계획 - 개인 자율성 / 책임감 - 현실주의와 결합된 낙관주의 -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개인과 사회적 정체성 - 사회적, 문화적으로 민감한 가치관 - 정신적이거나 삶의 더 큰 목적의식 - 강한 도덕적 품성 -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헌신
사회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성: 부모, 동료와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과 신뢰 관계 인지 - 사회적 장소 및 통합 감각: 더 큰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연결되고 가치를 부여 받음 - 사회적, 전통적 기관에 대한 애착 (예: 학교, 교회, 비 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판단하는 능력 - 시민 참여 약속

※ 출처 : Jacquelynne Eccle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ART

02

동 네 청 소 년 과
마을재생을 연결하다



01_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국내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현황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에서 활동 기반 조성 및 확충으로 통합적 청소년 정책 추진하려는 움직임 시작되었다. 현재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크게 3가지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

- 1) 교육부 → 교육 및 학교관련
- 2) 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 관련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 3) 보건복지부 → 복지시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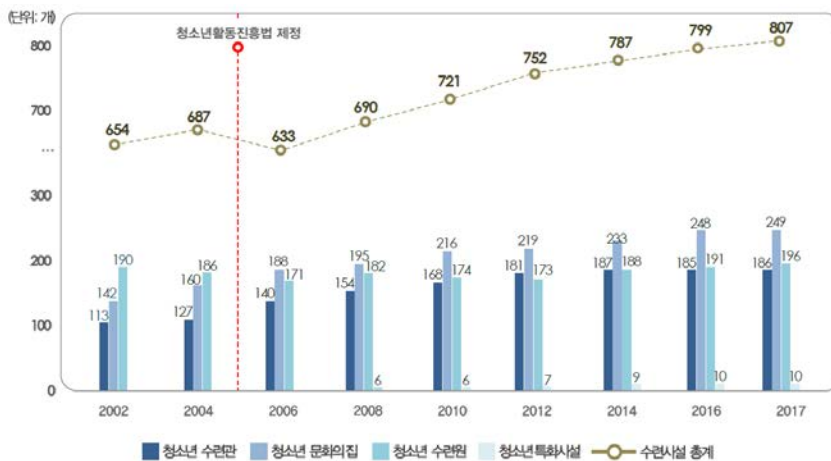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청소년 여가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부, 빈곤층 아동에 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과다 경쟁 및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여성가족부에서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었으나 교육부에서 방과 후 학교로 추진 중)

이 중 청소년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은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및 사업연계를 위해 교육부와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경우 교육정책에 편중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❶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 미흡
- ❷ 수동적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참여 지원 한계
- 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간공급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이 있다. (15'12월 31일 기준)



[청소년시설 연차별 현황]

(출처 : e-나라지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현황)

[청소년 관련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함께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이 가능한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 정보, 환경 등 청소년 환경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체재에 적합한 부대 및 편의시설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청소년 활동 진흥, 역량개발, 참여활동화 등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의료, 자립지원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 상담, 보호 등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위험 청소년 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서 행동 장애 청소년 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참고자료 참조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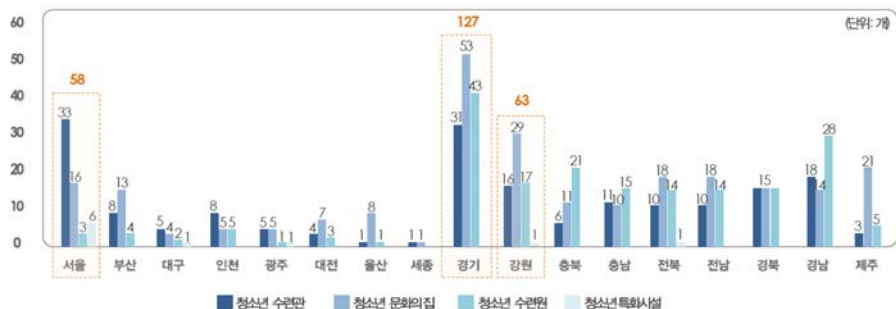
중앙정부에 의해 설치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 및 시설의 경우 시, 또는 구 단위로 조성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생활권 단위에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공연시설, 도서관, 전시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시설 선호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이용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시시설의 경우 도·농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에 비해 지방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관련 시설의 부족과 시설공급의 차이가 하나의 이유로 보여진다.(청소년종합실태, 2014)

[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 %]

구분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아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림, 수목원, 자연휴양림
2011	49.4	24.4	61.2	-	-	11.3	32.0
2014	39.6	15.7	60.8	83.9	47.3	13.5	34.5
특광역시	39.5	18.3	58.4	85.6	51.5	13.3	36.3
동부	40.4	14.3	63.3	83.3	46.2	14.1	34.1
읍면부	37.6	11.4	61.3	80.6	37.3	12.7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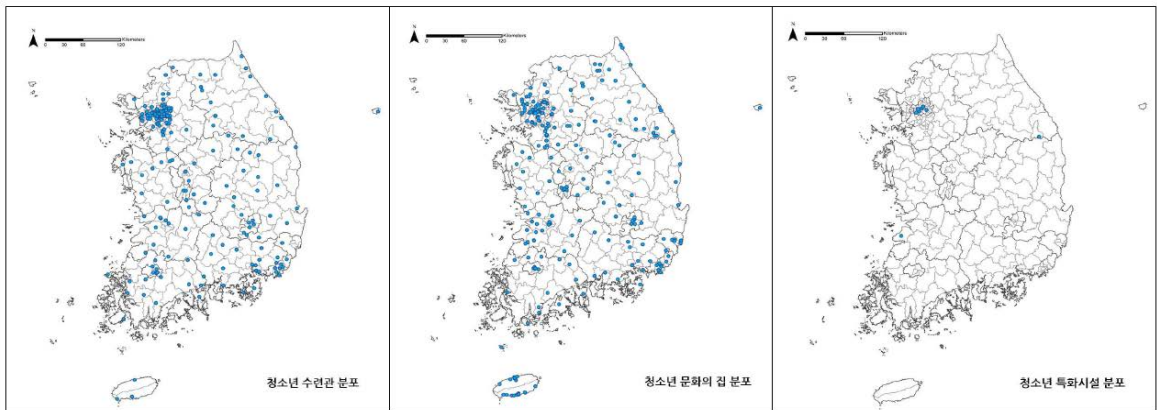
※ 출처 : 유성렬 외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56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공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점적으로 지역 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히 제한된 시설 및 활동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지자체 내 1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수정 외, 2015)



[국내 지역별 청소년 시설 조성 현황]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yac/cs_yac_f007.do)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전국분포 현황]

(출처 : 서수정 외 (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정책방안 연구)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청소년 관련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단발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부처간의 연계사업 모색 및 추진 필요

현실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및 시설공급이 3개의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다보니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적 수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기획된 이벤트 등에 일회성 참여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단계 그리고 지역 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여와 독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국토부, 문체부 등 타 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내 다양한 참여주체 및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서 시도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과 물리적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이 있으며 근린생활 단위의 마을재생 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연계하여 추진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참여 목적별 연계가능한 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청소년 활동과 연계 가능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구분	부처	연계사업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의집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지역사회와 청소년 연계 거점시설	환경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파출소 시범사업
	중기청	창업인프라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역사박물관
청소년 활동 참여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교육부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보건복지부	방과 후 활동지원
	농촌진흥청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중기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역량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토요문화학교, 창의예술캠프,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청년) 창업,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환경 여건 강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청년내일 채용공제

※ 출처 :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02_마을재생 참여주체로서 청소년의 가능성

청소년들은 일상은 대부분 지역 내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을 기반으로 협력과 공감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반대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시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들이 마을재생의 참여주체로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의 마련 가능

청소년들이 마을재생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주체가 될 경우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 시도 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전체의 매력도를 높여줄 수 있으며 지역의 활동가 입장에서 다양한 기획과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각종 매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SNS와 같은 홍보매체에 대한 습득력이 높아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시 지역사회의 인식 확대와 홍보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에 대한 애착형성과 향후 지역의 전문가로 성장 가능성

청소년의 경우 변화와 인지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된 지역에 대한 애착관계는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 형성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고민들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만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을 떠나도 애착관계는 지속적으로 형성)

결국 청소년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결을 위한 활동은 성인기의 진로 선택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마을재생의 틀 안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뿐 아니라 활동가, 지역전문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변화의 중심점

동네청소년은 행동반경이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 한정되어지는 경우가 다수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장년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형제자매 등 아동 또는 청년과의 관계의 중심에 있다.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주민과 교류하게 된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경우 연령에 대한 인식 상 청·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 호의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의 연계 및 자극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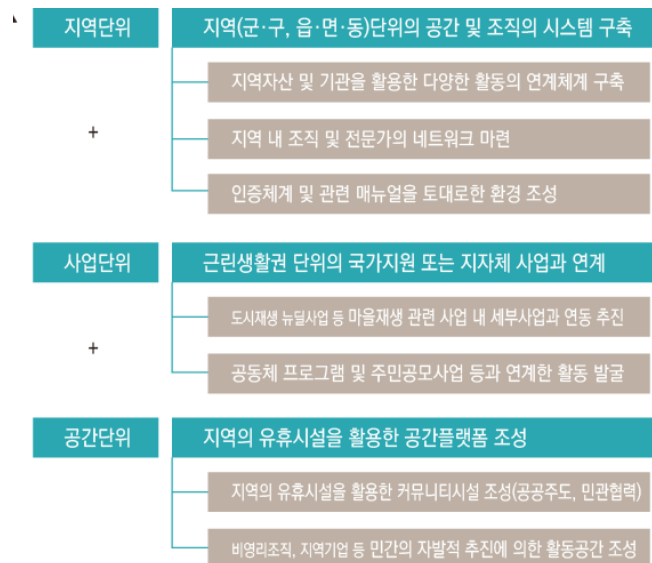
④ 빈집, 빈 점포, 저이용 공공시설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

도시가 점차 쇠퇴기를 겪게 됨에 따라 지역의 빈집, 빈 점포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네의 빈집 등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는 시점에서 지역이 유휴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지원법 상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영리조직, 민간의 협력을 통해 니즈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03_마을재생과 동네청소년의 연계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과 마을재생의 연계는 초기적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국내에서 청소년을 마을재생과 연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청소년 개인 간의 유대감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을재생을 통해 만들어 질 수만 있다면 이러한 경험치가 쌓여 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의 핵심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들과 마을재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간 단위 연계, 사업단위 연계, 지역단위 연계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지역사회 ‘읍·면·동 또는 구’단위인 생활환경 단위로 접근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계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린생활권 단위의 국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거나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간플랫폼 조성으로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동네청소년과 마을재생 연계방안]

연계 1 공간단위 연계

① 지역의 빈 점포,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간플랫폼 조성

공동체 활동에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의 조성은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활동에 기반이 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늘어나는 빈집, 빈 점포, 파출소, 공공이전에 따른 미 이용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을 공간복지 측면의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커뮤니티시설 운영은 국유지, 사유지 등 공유재산을 지자체에서 집적 운영·관리하거나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비영리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활동을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시, 군, 구 단위로 지원되고 있어 마을단위의 사각지대에서 민간주도의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및 공간이 조성되어질 수 있다. 민간의 형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NPO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주를 이루며, 민간 주도로 조성된 공간의 경우 비 제도화된 참여형태로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체성을 띄고 활동하며 관심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와의 관계 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민간에 의해 조성된 공간 플랫폼의 경우 향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시, 단위사업의 참여주체로서 연계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

★ 참고하세요

[지역 청소년들의 열정공간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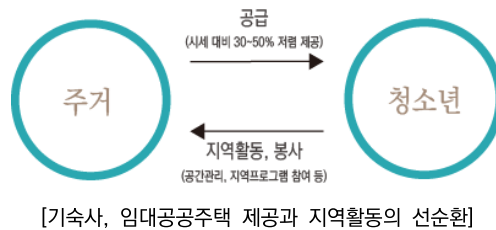
-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청소년 열정공간 99℃는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성인중심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공간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기존 마을공동체 카페(마을 숲 카페)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예산(2300만원=리모델링비+프로그램 운영비)을 마련하고 3년간 공간조성, 기획 및 운영방안 등 추진
- 청소년 운영위원회 조직, 역사동아리, 놀이터놀자 GO단 등 점차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 공간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후원, 청소년들의 직접 기금 모금활동 참여



© 김민경

② 주거 및 사회서비스 시설과 연계한 공간조성

공간단위 연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 공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청소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제공하여 마을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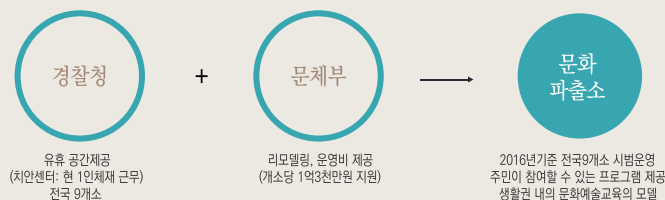


대도시의 경우 아직 사회적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생들의 경우 집값에 대한 부담과 공간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 이외에도 주거환경 및 창업환경 등을 지원해주고 이들에게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복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대신 지역관리 및 지원 등을 하는 선순환적 청소년참여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참고하세요

[저비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조성사례 _ 문화파출소]

-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중 하나인 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문화파출소에서 운영·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이외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무료 제공으로 토론모임,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 경찰청은 전국의 1000여개의 치안센터 중 9개소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체부는 시설 리모델링 비와 운영비를 개소당 1억 3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센터라는 특성상 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지역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탈바꿈



[치안센터를 활용한 문화파출소 조성 시범사업]

연계 2 사업 단위 연계

① 마을재생 관련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각 부처 및 지역 내에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근린재생형), 새뜰마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마을재생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도시재생사업 중 근린재생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문화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내 청소년 관련 세부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도시재생선도지역			
대구 남구	사회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설 조성사업	아동·청소년·장애인을 위한 문화, 체육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한 체험시설 조성 - 청소년 방송체험 등	
영주	후생 문화환경 역전사업	황금시대 방송국 프로그램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방송반과 연계하여 워크샵, 페스티벌 개최	
광주 동구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 청소년 도시재생 캠프, 청소년 페스티벌 문화거리 프로그램 운영	
천안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빈점포 활용으로 잉클카페(잉클컴퍼티 주체) 조성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발굴	
순천	청소년 문화광장 조성	x-game장, 운동공간 조성 등	
목포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도시재생일반지역			
충주	문화, 창업, 재생센터 조성사업	우체국 리모델링 및 문화광장 조성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 진로상담 멘토링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페스티벌 등 청소년 직업 가상 체험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창업 입점 팀 연계)	충주공고, 한림대자이고, 충주상고 창업동아리
	청년가게 조성사업	젊음의 거리 공점포 리노베이션 : 청소년 가게 공용공간 및 점포 리모델링	충주 청소년 협동조합
김해	금바다 연어 사업 -청소년 문화살롱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살롱 3개소 설치 (세부계획 없음)	
부산 서구	아미초장 하자마을	청소년창작스페이스 조성 미래세대 교육, 문화, 참여프로그램	

※ 출처 : 도시재생 선도지역(2014), 도시재생 일반지역(2016)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재정리

도시재생사업과 청소년을 실행주체 및 참여주체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문화 및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에 한정된 경우가 다수이나 청소년 창업동아리, 고등학교 방송반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활동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 지역이벤트, 전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단발성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다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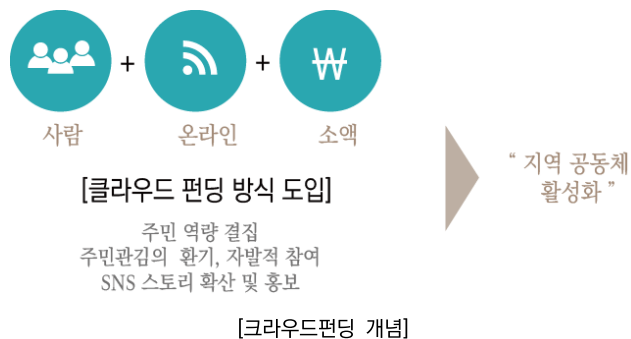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8개소와 매년 대상지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새롭게 추진되는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과 같은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유형을 마을단위의 청소년 공동체를 실행주체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등과 연계해볼 수 있다.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상담, 소외계층 취업,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가꾸기 등 휴먼케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청소년상담소, 공부방 등의 단위 공간 마련에 치중한 사업들부터 타 부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휴먼케어 사업 등을 통해 추진가능하며 현재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지역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연계사업추진이 가능하다.

② 주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한 단발성 프로젝트 연계

주민공모사업,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한 단발성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단위사업과 연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부단위사업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주도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초기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사업의 기획과 참여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성과에 대한 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과 같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방식을 적용한다면 주민의 역량이 결집되어 스스로 관심분야를 찾고 참여도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유형으로는 기부·후원형과 대출·지분형이 있으며 지역의 활성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사업이 실제 시행될 수 있는 시스

템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이 지역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해진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25-spring 2017) 정부의 지원이나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때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활용 가능하다.



★ 참고하세요

[런던 크라우드펀딩 도시재생정책]

런던시는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 (Mayer's Civic Crowdfunding Program : MCCP)을 통해 2016년 기준으로 200만 파운드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런던 시내 유희공간 57곳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총 예산의 75%를 런던시가 후원으로 나머지 금액을 시민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금하여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Future Cities Catapult'와 같은 산학 연계 도시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오프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순환적 유희 공간 개선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출처 : 건축과 도시공간, vol.25-spring 2017)

연계 3 지역단위 연계

① 지방자치단체-지역기관 -학교(중·고등학교, 대학과)와 연계

Betts.S.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은 성인과와의 관계 맺기 강화에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장으로 지역 내 마을재생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계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재생사업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문의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하기에 지역 내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마을재생의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지역 내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네트워킹이 잘 되는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참여기관들이 가지는 각 기관중심의 운영 관행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성 있는 참여,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는 일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이 쌓였을 때 네트워킹 된 체계의 권위가 높아지고 이와 수반된 다양한 업무와 사업들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마을을 장으로 이들의 직업을 찾아나가고 미래의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지역 내에 지역산업, 상업, 공방 등의 문화예술 공간 등 전문가와 공간들이 청소년과 연계될 경우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이러한 공간들이 도심 곳곳에 존재하여 각 공간들이 연계되고 그 공간들이 자유롭게 청소년과 참여 또는 협업하여 활동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은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본인의 꿈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이후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잠시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청년 또는 장년이 되어 다시 출신지 또는 인근지역으로 역류하여(U턴, J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내 활동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하세요

[서울 송파구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 서울 송파구는 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또래울 청소년 문화 공간 사업 추진
- 2억원의 지원금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공모를 통해 확보하여 2015년부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확보해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공간으로 제공
- 2016년도에서 16개 시설 및 단체(주민센터 6개소, 민간시설 9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선정하여 야외학습, 교육, 댄스·뮤직, 음악공연, 진로체험, 예술창작소 미디어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과 연계한 공간 마련을 위한 인테리어부터 운영관리방안까지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복지서비스 시설의 향유 증가
- 자유학기제 시행해 따른 청소년들의 지역 내 교육 및 문화여가활동이 근린생활 단위에서 가능해 질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공모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인테리어부터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한다. 여가와 학업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인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이는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출처: 송파구 보도자료 (2016.5.2.) '2016년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16개 단체 선정·지원)



[2016 송파구 또래울청소년문화공간
참여기관 및 조직]



[벽화작업을 수행하는 송파구 청소년]

© 내일신문블로그

[송파구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젝트 관련 지역기관 연계]

구분	부처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거여1동 주민센터	토론, 세미나, 공부방, 생활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음악 및 밴드연습실 대여, 중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마천1동 주민센터	
	마천2동 주민센터	
	방이1동 주민센터	
	석촌동 주민센터	
	삼전동 주민센터	
	문정1동 주민센터	
	잠실본동 주민센터	
	오금동 주민센터	
민간시설 및 비영리기관	청소년 IT 카페	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국악, 수공예, 목공예, 악기활동, 댄스연습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및 관심분야 지원, It 교육, 진 로상담 및 독서동아리 등 교유 및 컨설 팅 지원 등
	일촌공동체	
	빛소	
	다두리	
	즐거운가	
	더브릿지	
	좋은사람들 풍물봉사단	
	솔바람독서실	
	송파제일독서실	
	오륜공부방	
청소년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동아리활동 지원,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지원, 방송동아리 제작활동 지원, 세미나 및 토론허동을 위한 공간 대여 등
	송파예술마루	
	소아또래울미디어센터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 참고하세요

[미국 시카고 ‘청소년 방과 후 예술교육 프로그램 After School Matters]

- (시카고-학교- 지역기관과의 협력) After School Matters란 지역 예술가들을 청소년 멘토와 선생님으로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991년 시카고 문화부에서 창안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Gallery37¹⁾ 프로젝트의 일환



[활동적인 공간만들기 프로세스]

(출처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0), Creative Place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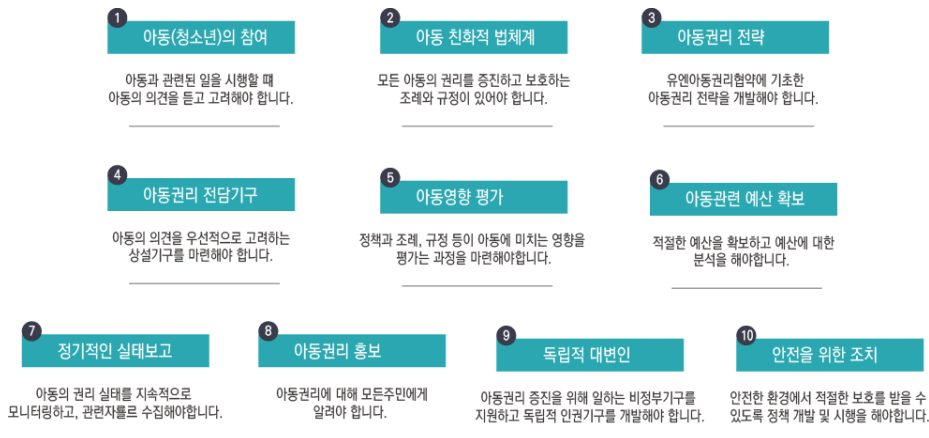
- (프로젝트 특성) 청소년들에게 비형식적인 동아리에서 장학금을 받는 견습과정과 인턴십에 이르는 실무 교육 중심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멘토를 통해 전문적인 경험과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소질을 개발하는 귀중한 시간을 경험
 -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에서부터 요리, 인명구조 코스에 이르기까지 25,000개에 달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방학 수업 진행을 통해 시카고 청소년이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과 취직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의 토대 마련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소는 지역 고등학교, 인근 공원, 도서관 등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뤄지며 팀워크, 시간 준수, 대화법, 프로젝트 관리기술 등 교육 받음
- (협업체계 구축 및 예산) 시카고 주 - 공원 - 학교의 협력을 포함한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이 협업을 통해 진행
 - 광범위한 공공-지역 협력관계는 60개의 공립 고등학교와 100개가 넘는 커뮤니티 기관이 청소년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카고 시정부, 학교, 도서관, 공원 관리국에 이르는 여러 단체들이 현물과 재정기부금을 통해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63% 제공
- (성과 및 시사점) After School Matters 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시는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출석률 향상, 낙제율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미술작품과 공공예술작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 형성

1) Gallery 37: 예술적 성향을 지닌 도시 청소년을 37블럭의 유휴공간에서 예술과 관련된 견습생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Job training 프로그램- 후에 After School Matters로 발전

② 청소년 관련 인증체계 및 관련 매뉴얼을 토대로 한 체제 마련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으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대학 내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실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거주환경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등에 이러한 교육 전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을재생 참여에 대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UNICEF의 아동친화도시와 같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과 체제를 마련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여기서 제안되는 10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의견을 기반으로 한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와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한 지속성을 담보해야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확산을 위해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송파구·강동구, 완주군, 부산 금정구, 군산시 등이 있으며 현재 광명시, 순천시 등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제정 및 지자체 사업 추진 중이고 해당지역에서 이러한 체제를 기반으로 마을재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10가지 원칙]

(출처 : UNICEF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 참고하세요

[Youth + Schools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Y-PLAN」]

- 와이플랜(Y-Plan)이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도시 및 지역 개발연구소(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동시에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거주환경 구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를 통해 경험을 체득하는 교육 전략 프로그램
- 거리와 보도, 건물, 교통망 등 지역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모든 환경들은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과 학교를 도시 계획의 중심에 두고 함께 참여시켜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와이플랜 주요 개념 및 상징 심볼]

(출처 : Y-Plan 홈페이지 <http://y-plan.berkeley.edu/what-is-y-plan>)

- (프로젝트의 의의) 1) 청소년: 와이플랜은 청소년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계획과 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줌
2) 지역사회: 와이플랜은 모든 사람들에게보다 나은 계획과 정책,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즐거운 공간 구축을 위해 젊은이들의 통찰력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시민리더의 역량을 키워 지역 구성원으로 활용
- (Y-Plan의 활동) 현재 13,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수십 군데의 학교, 교사 및 시민사회, 미국 전역에 청소년과 지역 사회 면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①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Richmond, California)
 - 지역에 무관심한 리치몬드 고등학생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연계·참여시킴으로써 건강한 도시 구축 및 이를 수반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유도하였고 공원개발, 공공주택 개선,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사회 구축과 복지 향상에 관심을 집중시킴

- 이런 노력을 통해 2014년 리치몬드시 최초로 모든 정책과 법령에 건강한 사회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채택함
- 올해 리치몬드의 와이플랜은 3군데의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기후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봉사 전략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나는 와이플랜을 통해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다. 또한 성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선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Y-PLAN Student, Richmond High School



250 학생



3 학교



8 시민 파트너스



5 교육자



8 강좌



3 도시-학교
연계 프로젝트

② 리치몬드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Y-PLAN]

- 리치몬드 남해안가에 대한 변화 도모를 위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리치몬드 주민들에게 기회와 투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진행
- 광역범위에서 지역맥락읽기, 지역의 현재 모습 담아내기, 로드맵으로 지역 읽기, 등곳길에 대한 마인드맵, 지역 맵핑,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분석 등 다양한 활동 시행



[지역의 현재 모습 담아내기]

출처 : <http://y-plan.berkeley.edu/what-is-y-plan>



[등곳길에 대한 마인드맵]

출처 : <http://y-plan.berkeley.edu/what-is-y-plan>

PART

03

동네청소년의 작은 움직임,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다



01_청소년의 황금시대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사회x교육청
x학교x청소년
#지속가능성
#청소년참여지원단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도시재생선도사업 후생시장권역)

[사업+지역단위 연계]

#1_ 도시재생사업과 청소년의 만남

‘생활이 넉넉해지도록 돕는다’는 의미의 영주시 후생시장은 1955년에 조성되어 고추시장, 고추전이라고 불리는 고추전문 도매시장이었다. 1950년대 당시의 근대건축물의 원형이 보전된 장소이다. 43개동의 근대건축물이 남아있으며, 옛 시장골목의 흔적이 남아있는 특색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1972년 영주역의 이전으로 쇠퇴를 겪으며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단 몇 개의 점포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다.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이 가진 잠재력을 토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도시의 쇠퇴로 인해 주민의 대다수가 고령화하여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사업 초반 상인 또는 주민들은 후생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재개발 대책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등 난관이 있었다. 또한 이곳은 후생시장은 초, 중, 고교 등곳길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황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들이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해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재생에서 노인과 청·장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도시재생에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후생시장권역 이규식 부코디네이터 인터뷰 중-

#2_ 장학사, 교사, 청소년이 함께하는 마을재생

사업 초반 영주시 후생시장 권역 내에 세부프로그램은 단순히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영주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 부여와 참여의 극대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 김민경



[후생시장 전경]

©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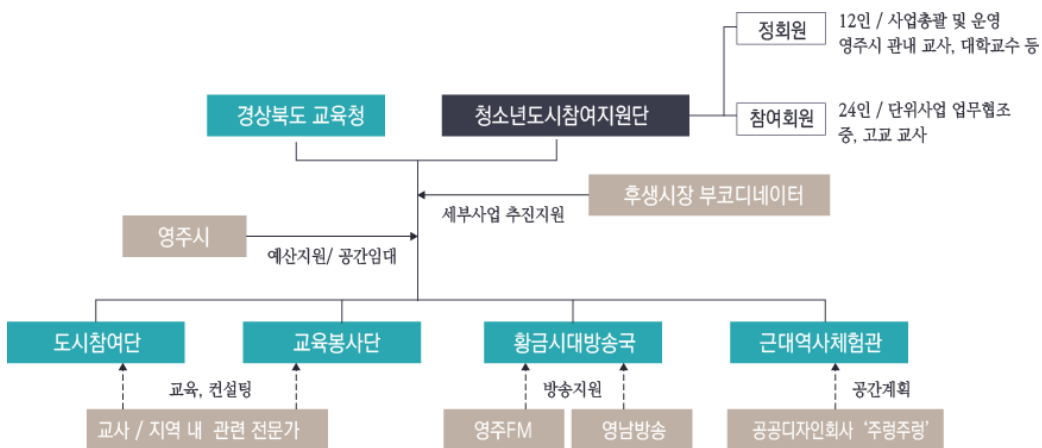
[광복절을 맞이하여 역사리플렛 제작 배포]

©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모색하기 위해 영주시 교육청과 관내 중고교 교사를 주축으로 2015년 9월, 6명의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이 결성되었다. 초기 영광여고, 제일고 교사들의 참여에서 현재는 영주여고, 영광고 교사들까지 참여하여 총 12명의 교사와 100여명의 학생이 영주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은 뜻이 있는 교사들이 매주 일요일 주 1회 회의를 원칙으로 모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과 참여를 위한 교육컨텐츠 등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는 조직이다.

“학생들만으로는 조직화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조직 및 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후생시장권역 이규식 부코디네이터 인터뷰 중-



[후생시장 청소년 참여 사업 추진체계]

#3_ 청소년이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영주시 후생시장권역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세부사업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영주시의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본인의 진로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도시참여단, 저소득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봉사단, 황금시대방송국이라는 방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주시의 역사에 대해 체험하고 관련 프로그램 발굴·기획 및 운영하는 영주근대역사체험관 사업이 그것이다.

그 중 영주근대역사체험관의 '지역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일회성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와 역사를 통해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지역 내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고 직접적 건의에 의해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필요한 공간계획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세부사업	1 도시참여단	2 교육봉사단	3 학생방송(황금시대방송국)	4 근대역사체험관
사업추진조직	도시재생청소년지원단	골목교육봉사단	GAB 학생방송반	영주시 초, 중, 고등학생
목적	영주시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동체 운영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	황금시대방송국 운영	역사체험관 콘텐츠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요활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연구활동 후 보고서, 홍보보로써 제작	멘토(고등학생) 22명, 멘티(초등학생) 15명 아동심리학습 및 생활멘토링	매주 금요일 15시 라디오 녹화방송	영주근대역사골든벨, 공모대회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참여

[후생시장권역 청소년 참여 세부사업]

영주 지역의 정책을 제안하는 '도시참여단'은 도시재생청소년지원단이라는 관내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조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한다. 건축, 의료, 경영 등 지역 내 소재한 다양한 사안과 본인들의 관심사 및 진로를 고려하여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때 청소년참여지원단은 청소년들에게 각 분야별 지역의 전문가와 학생들을 연계하여 학습 및 교육환경을 지원해준다. 골목오락실이라는 후생시장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 대한 구성 및 방향에 대한 고민부터 815 광복절 영주의 독립활동 등을 직접 기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운동에 대한 역사를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봉사단의 경우 골목오락실(청소년 아지트) 완공 후 골목공부방을 운영하여 후생시장 인근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청소년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선생님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교육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 이규식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4_ 청소년들의 목소리, 황금시대 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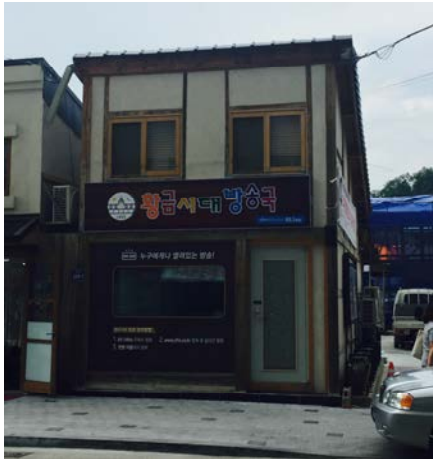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간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전한 문화생활과 놀이공간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골목오락실, 그리고 황금시대 방송국이다. 황금시대 방송국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방송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영주FM과 연계하여 정규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매주 토요일 전파를 타고 있다. 황금시대에서 학생들은 지역과 자신들에 대한 고민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홍보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기획하여 방송을 하고 있다.

2016년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영주시 내 중 고등학생 방송반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영광중, 대여중, 영광여고, 영주여고, 영주고, 제일고 등 10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9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 15시면 청소년들이 직접 라디오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이면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국비지원이 종료되지만 황금시대 방송국의 경우 별도의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 영주 FM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도 행사가 있을 시 영주시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6.10.22
방송국 개막 페스티벌]

©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후생시장권역 내 황금시대 방송국]

© 김민경



[후생시장 권역 내 황금시대 방송국]

© 김민경

#5_ 지속가능한 청소년의 참여, 그리고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의 중요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중소도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조직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도 청소년을 도시재생 사업시행을 위한 주요 주체로서 인식하지는 못했다. 영주시 또한 초반에는 기획된 사업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의 일회성 참여로만 생각했었을 것이다.

“도시재생선도사업 후생시장권역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경북교육청 장학사의 청소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에서 출발한 효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과 그 뜻을 함께한 열정 있는 지역 내 교사들의 힘이다.”

-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후생시장권역 이규식 부코디네이터 인터뷰 중-

하지만 영주시의 사례는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이 조직되었다는 점이 타 지역과의 차이점이다. 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 필요한 교육컨텐츠 마련, 전문 인력 섭외와 청소년과의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관심분야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후생시장권역의 청소년 참여 사례는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서 또 하나의 주민조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교육과 연계하여 동네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자, 전문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뒷받침하였기에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조성된 황금시대방송국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아지트 골목오락실, 그리고 다양한 연극, 문화공연 등과 연계한 군것질거리 등이 완공되어 지역재생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 이규식 후생시장 부코디네이터 인터뷰 (17.6.13)를 바탕으로 작성



[황금시대 방송국 개막 페스티벌]

©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안시 원도심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민간주도

02_동네청소년과 동네삼촌의 만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명동

[공간+사업연계]

#1_ 원도심의 빈 점포에서 청소년 아지트로, 잉클카페의 시작

잉클컴퍼니는 20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천안시 원도심 내 위치한 빈 점포를 임대하여 잉클카페라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사회교류 공간 대여와 상담, 직업교육, 공연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고용을 통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에 따른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진 지역사회의 인식과 문제를 그들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음료판매를 통한 수익금과 청소년과 공연 등을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케이터링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현재까지도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지역의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한명의 청년으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잉클카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기도 시행하기도 한다.

“잉클커퍼는 지역의 다양한 재능 있는 청소년과 그들의 관심을 연결해주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만 수련원 같은 공간은 목적성이 있고 틀이 정해져있어 발길이 잘 가지지 않아요.”

-천안시 잉클컴퍼니 유병준 대표 인터뷰 중-



[앵글커피 전경]

© 김민경



[앵글커피에서 목공예에 참여하는 청소년]

© 유병준

#2_ 현 시대 청소년들의 고민들기에서 출발

앵글커피의 유병준 대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여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처음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하였다. 유대표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토대로 창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활동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다. 목공예 배우길 원하는 이들에게 지역대학의 디자인전공의 대학생을 연계해 주어 자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만들어진 작품들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공유재산으로 쓰이는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제시하면 앵글커피는 지역의 예술가 및 청년을 연계시켜주는 것에만 관여하고 이후는 이들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후, 점차 청소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발적으로 카페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축제 등을 기획하는 등 긍정적 시너지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 정도는 지켜봐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과의 협력을 통한 직접적
참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능력과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음

(노혁(2012), 청소년복지론)

-천안시 잉클컴퍼니 유병준 대표 인터뷰 중-

1

동원으로서 일시적 참여

2

특정 목적상 참여

3

성인이 직접 지시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4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참여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방안]

(출처 : 유병준(2017) '마을재생의 새로운 활력, 동네청소년'
마을재생세미나 발표자료 참조)

#3_ 사회적기업의 낮은 인식, 지역사회의 인식 한계

처음부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청소년을 조직화하고 이들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행 주체로서 활동하기에는 지역주민과 특히 청소년의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상 지역주민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청소년 참여를 위한 학부모의 설득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의 경우 교사들은 안전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여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불량소녀



[지역이벤트를 직접 기획 추진한 원도심 청소년모임 '불량소녀']

© 유병준

#4_ 어디에도 없는 우리들만의 이야기_ ‘위로의 할로윈’

2016년 6월 잉클카페를 아지트로 삼아왔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불량소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위로의 할로윈’이라는 지역이벤트를 자발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시민문화 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였고 이에 선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50만원의 예산 내에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축제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3회의 정기회의와 지역대학의 교수의 자문 및 컨설팅, 지역 업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조직 및 인력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학업에 지친 너희들을 위한
SOLUTION
위로의 할로윈
PARTY

2016. 10. 29 (SAT) PM 4:00
천안역 아트큐브 135실대

주최: 천안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천안시 청소년문화진흥원, 천안시 문화재단, 천안시 문화재단, 천안시 문화재단, 천안시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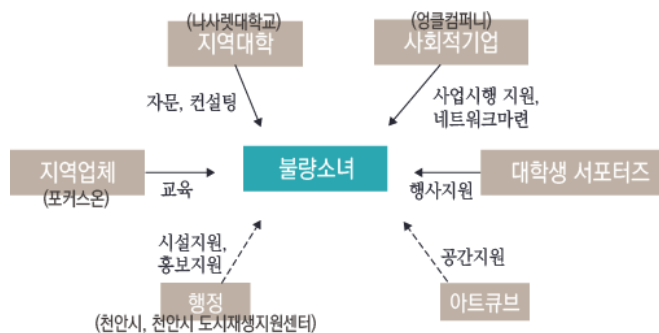
[위기의 할로윈 포스터제작]

© 불량소녀



[청소년모임 ‘불량소녀’ 회의사진]

© 유병준



[‘위기의 할로윈’ 추진을 위한 협력 주체]

하루의 이벤트를 위해 협력한 조직 및 인력은 불량소녀 청소년들이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잉클컴퍼니의 유병준 대표에 의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도 하였으며 SNS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당일 70여명의 지역주민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이 직접 주체가 되어 이벤트를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것과 더불어 사업을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할 수 있다. 비록 단발성 행사였지만 함께 진행했던 불량소녀 중 1명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기획자로 진로를 결정할 만큼 뜻 깊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한 번의 축제 기획은 비록 미약하지만 주변의 청소년 친구들에게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런 기회에 대해 문의가 계속 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 청소년 조직 '불량소녀' 팀원 인터뷰 중-

#5_ 즐기고, 소통하며, 지역의 가치를 만든다!

청소년의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듦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속 가능한 청소년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획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여 청소년인 본인이 지역사회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해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조직화하는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 역시도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겨났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역공동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점점 좋아졌어요.....”

-천안시 청소년 조직 '불량소녀' 팀원 인터뷰 중-

* 유병준 잉클컴퍼니 대표 인터뷰 (17.4.24, 17.6.2)를 바탕으로 작성



[청소년 포텐티아 회의]
© 유병준



[청소년콘서트1]
© 유병준



[청소년콘서트2]
© 유병준

03_지역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

#영주시 새뜰마을사업
#크라우드 펀딩
#공공프로젝트
#당뇨먹는 감자
#청소년과 어르신 연계
#커뮤니티비즈니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대상지)

[사업단위 연계]

#1_ 지역 청소년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기까지

영주시 새뜰마을 사업대상지인 관사골은 1940년대 영주에서 안동까지 중앙선 철도 개통과 더불어 철도직원들의 관사가 지어지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그러나 철도의 기능이 중단되고 도시가 점차 쇠퇴됨에 따라 취약계층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이 되었다. 관사골 대부분의 인구는 60~80세 무직, 일용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활동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상지 주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프로젝트 시행주체의 대안으로 처음 찾게 되었고 이후 변화가 찾아왔다. 이들이 사업의 시행주체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 내 분위기 전환과 함께 지역 어르신에게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_ 고등학생과 NGO단체가 함께 만드는 공공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청소년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영주 고등학생 동탄지봉사단 50여명과 관사골 주민이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기획회의, SNS 홍보 및 인터뷰 영상 편집, 포스터 전단지 디자인 등 주체적으로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였다. 관사골의 지역 어르신들이 마을 텃밭에 돼지감자를 재배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 영주시 고등학생 150여명과 NGO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크라우드 펀딩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2회의 회의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크라우드펀딩 포스터]

© 행정자치부

#3_ 지역 어르신들의 아이디어+청소년의 실행력

관사골의 크라우드 펀딩의 이름은 ‘당뇨먹는 감자’이다. 지역의 어르신이 돼지감자차를 드신 후 당뇨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면서 직접 돼지감자를 재배하여 당뇨환자를 돕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를 크라우드 펀딩에 직접 제안하기 위해 기획 및 역할분담, 추진일정 및 방안 등에 대해 청소년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직접 부석 한밤실 임야 600평에 돼지감자를 파종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과 SNS 홍보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교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작성한 크라우드 펀딩 전단지를 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총 모금된 금액은 6,033,000원으로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모금액은 돼지감자 재배 및 가공, 로스팅기계 구입, 포방재 개발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영주시 관사골 프로젝트 포스터]
(출처 : 관사골 크라우드펀딩 리플렛)



[영주시 관사골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
© 반영선

“크라우드펀딩사업에서는 홍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들은 그부분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사골 새마을사업 반영선 코디네이터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세미나 내용 중-

#4_ 크라우드펀딩의 가능성 및 한계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지역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런던시의 경우 선정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며 예산의 75%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25%를 온라인 펀딩을 통해 모금액을 충당한다. 예산 소요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직접 사업화 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 사업의 경우 일회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 이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연계가 어려워 단발성으로 그친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발적인 청소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청소년들의 참여 지속화 방안이 사업추진 초기에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사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똥판지 봉사단’이라는 청소년 조직이 생겨나고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직접 기획·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쌓았으나 이 청소년 공동체 조직이 지속할 수 있는 후속사업 또는 프로젝트 등이 없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아쉬움을 낳았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점수로 인해 동기화 되었으나 이것이 참여의 자발적 동기로 어떻게 전환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며 또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반영선 새뜰마을사업 코디네이터 발표내용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17.4.24) 참조



[영주시 관사골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
© 반영선



[지역사랑클라우드펀딩
최우수상 수상]
© 반영선

04_동네청소년의 플랫폼 ‘달그락달그락’

#군산시 원도심
#청소년 자치공간
#민간주도
#달그락달그락 공간플랫폼
#청소년 자치 #NPO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공간 + 지역단위 연계]

#1_ 청소년을 보내는 도시, 청소년이 머무는 도시

군산시 원도심은 개항이후 산업, 행정, 상업, 금융의 중심지였으나, 내항의 기능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 도시 산업의 변화를 위해 2009년부터 내항지구와 동국사 인근을 중심으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2014년도 근대역사경관지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부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원도심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공동화된 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쇠퇴과정은 군산시의 인구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원도심인 해신동의 청소년 인구(10-24세)가 2000년 1,725명(24%)에서 10년 뒤인 2010년도에는 15%로 감소했고 중앙동의 경우에도 1,582명(26%)에서 517명(14%)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중 20-24세의 감소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젊은층의 인구감소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 김민경



[하교하는 군산시 원도심 청소년들]

© 김민경

군산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일자리 등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어찌 보면 지방의 중소도시가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과 애착심을 길러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겠다.

“현재의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성인이 된 청소년을 대도시로 보내는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해주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경험들이 지역에서 본인의 일을 찾아나갈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건희 소장 인터뷰 내용 중-

#2_ 빈 점포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군산시 원도심은 도시산업의 변화로 인해 빈점포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동국사 가는 길목 2층에 위치한 빈 점포가 청소년자치연구소이자 청소년 자치 공간, ‘달그락달그락’이란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공간의 변화는 군산시를 고향으로 두고 YMCA에서 청소년시설 운영을 담당하면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한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연구소로 민간 차원에서 청소년의 안전, 활동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들꽃청소년세상의 전북지부와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법인을 결합하면서 ‘달그락달그락’이라는 공간플랫폼을 조성하게 되었고 5인의 청년들이 활동가로 참여하여 지원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나갔다.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시공 전]

© 정건희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시공 후]

© 김민경

청소년자치연구소는 ‘달그락달그락’에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주체가 되어 청소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사회, 어떤 공간, 어떤 마을, 어떤 도시’가 좋은 곳인지 고민하고 함께 나가다가 다양한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동체 관계망을 확장시켜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만 9세~24세),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위해 화~토에 무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청소년동아리방, 회의실, 강의실, 휴식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공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지역사회의 기부금, 후원금이 가장 많으면 일부 연구사업 등을 통한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자치를 위한 활동]

출처 : 청소년자치연구소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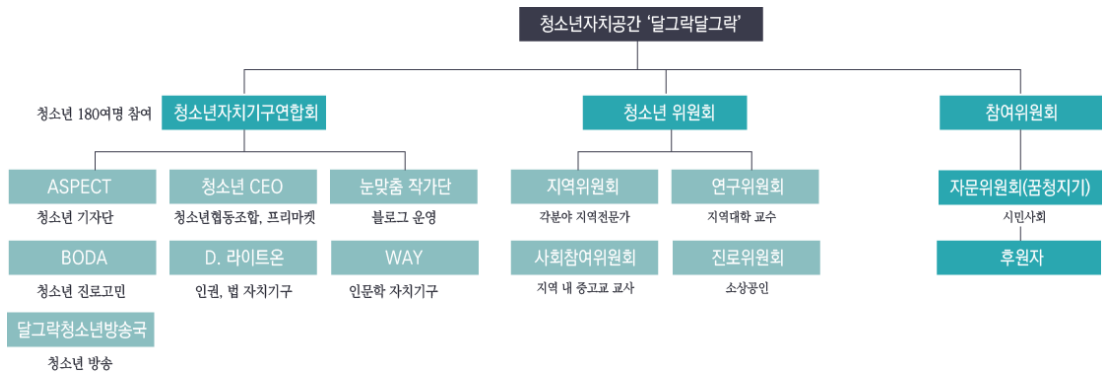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 방안]

출처 : 청소년자치연구소 리플렛

#3_ 동네청소년의 움직임 ‘달그락’이 지역사회의 변화 ‘달그락’으로

청소년자치공간의 이름인 ‘달그락달그락’중 첫 번째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내는 소리이며 두 번째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공간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등록과정을 거친다. 2017년도에는 18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신청하였고 이 중 130여명 내외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각 청소년 공동체 조직 대표들로 구성된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청소년 조직이 이 공간에서 운영·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구성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참여위원회,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활동가들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행하고 있다.



[청소년자치공간‘달그락달그락’ 운영주체]

ASPECT(청소년기자단), 청소년CEO(청소년협동조합), 눈맞춤작가단(블로그운영), BODA(청소년진로고민), D.라이트온(인권, 법자치기구), WAY(인문학자치기구), 달그락청소년방송국(청소년 방송) 등 총 8개의 청소년 공동체 조직들이 상호 연계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들은 단순히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의 관심분야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스스로 전략화하고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 실제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ASPECT의 경우 새전북신문과 청소년자치연구소가 MOU를 맺고 매주 목요일자 신문의 한 면을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기사를 만들고 있으며 달그락청소년방송국의 경우 군산스토리과 드림미디어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활동을 하며 청소년 소셜 방송인 달그락청소년방송국을 개국하였다. 이러한 활동들 뒤에는 지역사회의 의사, 공무원, 지역기업 대표, 초등학교 교감, 시의회,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성인들이 청소년위원회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달그락달그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 및 사업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재생에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달그락달그락에서 일어나는 많은 청소년활동들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이를 지역사회의 정책과 사업에 실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제안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 다릅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인터뷰 내용 중-

[DYBS 청소년방송국 개국]
© 정건희



[청소년 플리마켓 행사 진행]
© 정건희



#4_ 조례제정, 민-관-지역사회의 협력의 중요성

‘달그락달그락’이라는 공간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활동가의 지원이 있다면 청소년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들이 기획될 수 있다는 점과 청소년들이 마을재생의 주요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해관계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관심분야에 의해 조직화되어 조직에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각 조직 간의 연계가 비교적 원활한 점을 알 수 있다.



[ASPECT 기사작성을 위한 회의]

©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 CEO 플리마켓 행사 진행을 위한 회의]

© 청소년자치연구소

또한 군산시 '달그락달그락'의 사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이슈를 스스로 고민하고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제안과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는데 군산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과 청소년이 TF를 구성하여 두 달여간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 해당 조례 제정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인식되는 문제를 행정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며 이들이 한명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으로도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가능성을 행정과 지역사회에 얼마나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이들이 참여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인터뷰 (17.6.21)를 바탕으로 작성

05_마을 청소로부터 시작한 활동

#서울시 희망지사업
#지자체사업 연계
#한천마을
#청소년 봉사활동
#지역사회 문제인식
#지역사회 문제해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희망지사업 대상지)

[사업단위 연계]

#1_ 마을청소에서 시작하다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은 재개발 해제되면서 2015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에 선정되었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선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석관동 한천마을은 석관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등 학교들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야외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천마을의 주요 이슈는 쓰레기 무단투기, 골목주차, 마을관리소였으며 이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한천마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봉사활동 중인 청소년들]

© 서민중

#2_ 변화의 시작, 10명의 고등학생 ‘석관레인저스’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이슈를 중심으로 기획된 초기 프로젝트는 담배꽂초 줍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 만들기 등 일회성 봉사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단발성 프로젝트를 실행해줄 인력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 10명의 같은 학교 여고생이 이 문제에 공감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실 초기에는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여고생들은 봉사시간을 위해 참여하였으나 지역 활동가의 주도로 ‘석관레인저스’라는 팀이 결성되고 팀 내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점차 이들은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지역문제 해결]

© 서민중



[지역경관향상을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

© 서민중

석관레인저스는 봉사시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격주 토요일마다 모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벽화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캠페인의 내용은 마을 곳곳에 담배꽂초를 비롯한 쓰레기들의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벽화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캠페인을 위해 선 벽화 설치에 필요한 예산, 주민 동의, 장소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기에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가들과 함께 ‘한천마을 다온 바자회’를 기획하였다. 이 바자회를 위해 청소년들은 3개월 동안 포스터 디자인, 쿠키 제작, 활동영상 제작 등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며 바자회는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단체들의 도움을 힘입어 크게 성공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벽화 설치를 위한 비용 마련에 성공했고, 부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홍보, 주민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용 마련에 성공한 청소년들은 벽화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활동가와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섰다. 학교가 파한 뒤 한 집 한 집을 돌며 직접 설득에 나선 청소년들은 결국 대상지로

정했던 대다수의 집들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청소년들은 벽화 작가와 함께 마을을 돌며 이박 삼일 간 벽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3_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

석관레인저스가 한천마을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는데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있었다. 우선 이 사업을 담당할 엔지니어링 조직으로, 마을의 환경 개선을 디자인하고 설비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고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등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공동체 조직을 위해 중간지원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마을활동가(코디네이터)이다. 한천마을 희망지사업의 경우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에서 PMA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맺고 한천마을에 활동가를 파견하였다. 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과 엔지니어링 업체, 공무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각자의 요구를 현장에서 풀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천마을 청소년 공동체의 경우 타 이해관계자들과는 관계없이 나눔과미래 활동가가 먼저 청소년 공동체 구성을 기획하여 엔지니어링 업체와 성북구청에 제안하였다.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직접 모집하고 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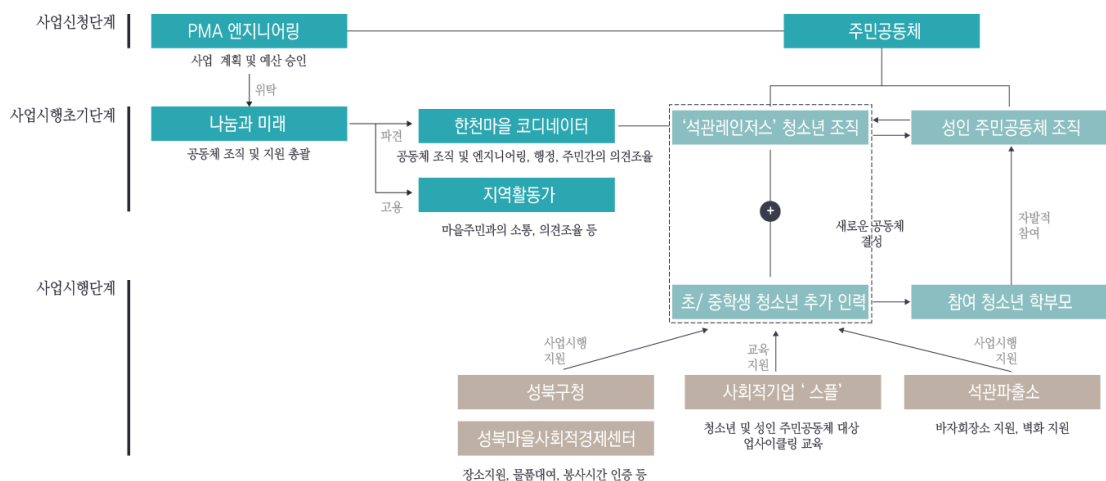
세 번째는 지역활동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체 용역업체 외에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가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한천마을 인근 장위복지관의 공동체분과의 과장을 활동가로 위촉하였다. 지역활동가는 용역업체 활동가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역할이었으며, 파견된 마을활동가(코디네이터)들의 주도로 이미 조직이 끝난 초기 단계의 청소년 공동체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모임으로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는 전담조직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인 유관센터이다.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 공무원들과 성북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으나 바자회 장소 알선, 봉사시간 적립, 물품대여, 지원사업 등 공공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은 사업 초기에 활동가들의 안내와 업무지시에 따라 봉사활동 등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역할을 직접 기획하였고, 활동가 및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의 재생을 위해 실천하였다. 주민들 또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청소도구, 간식, 공간제공 등 많은 것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소속된 학교, 인근 파출소, 지역단체 등 여러 조직들의 연계와 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의 도움들이 청소년들의 참여 시점부터 바로 연계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실천을 반 년 넘게 지속해온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동요와 도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마을재생에서 동네청소년의 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청소년 자신들의 순수한 끈기와 헌신이라 할 수 있다.



[한천마을 희망지사업 청소년 공동체 조직 및 사업시행 지원체계]

#4_ 청소년 공동체 확장의 가능성과 한계

청소년들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한천마을에서는 석관레인저스 외에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었다. 격주 토요일마다 마을을 청소하는 이 모임은 주민들이 직접 청소도구를 들고 나가 마을을 청소하고, 모아온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목적이었다. 초기 모임은 극심한 쓰레기 문제에 공감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평범한 형태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인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여자 고등학생들로만 이루어진 석관레인저스의 참여주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 결과 봉사점수가 필요했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청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터 작성]
© 서민중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봉사활동]
© 서민중

년들은 봉사시간을 채우면 나오지 않았지만, 몇몇 남자 중학생들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봉사점수와 관계없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활동가들은 이들의 문제의식이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청소를 하면서 마을 쓰레기 현황 지도를 직접 제작하도록 도왔으며 완성된 지도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에 부착되어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의 현황을 나타내었다. 지도를 다 만들고 나니 청소년들의 리더 역할을 하던 한 학생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포스터”를 만들어 집중투기 지역에 부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청소년들은 쓰레기 청소를 하며 모은 담배꽂초, 담배갑 등을 가지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활동가들은 이들이 활동이 석관레인저스의 또 다른 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청소년 공동체 조직과 기존 공동체와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새로운 청소년 공동체를 지속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지역재생에서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다.

* 서민중 한천마을 코디네이터 인터뷰(17.6.22)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06_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공헌의 연계

일본 도쿄도 칸다지구 와테라스

[공간 + 지역단위 연계]

#도쿄 치요다구
#고령화지역 #폐교
#학생기숙사
#학생들의 공간운영관리
#지역공헌 연계

#1_ 지역공헌과 연계한 프로젝트의 시작

2017년 현재 칸다지구 와테라스가 있는 아와지역은 도심의 쇠퇴지역 중 하나였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주변에 젊은층이 감소하여 1993년 폐교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으며 골목안으로 들어서면 빈집, 빈점포 등이 위치하여 지역의 쇠퇴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1997년도 아와지 지역만들기 계획추진협의회가 조직되면서 이 지역의 본격적인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의에 의해 2002년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 내 임차자, 부지소유자, 세입자, 저당권자 등 197명의 동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며 2013년도 준공까지 총 10년이 소요된 프로젝트이다.



[이전의 아와지역]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빈집, 빈점포 등이 위치한 아와지역]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 시 도쿄도에서는 9가지 지역공헌에 대한 의무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용적률 상승 (500% → 990%) 및 형태제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9가지의 지역공헌 조건으로는 오픈스페이스, 다세대 주택정비, 지역방재, 공원

[9가지 지역공헌 조건]

- ①오픈 스페이스및보도상공지
- ②다세대주택의정비
- ③슈퍼정비
- ④지역경제 및 구가 근로자 지원등 거점 정비
- ⑤옥상 녹화·보수성 포장등의열섬대책
- ⑥공원기능의재편·확충(2,500~3,000㎡)
- ⑦주변도로의무전주화등에 의한거리형성
- ⑧지역 활성화를위한커뮤니티시설,
학생 기숙사(36호)의정비
- ⑨타운관리조직에 의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대처

재편 등 물리적 환경개선도 있었으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학생기숙사 (36호) 조성, 타운관리조직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대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칸다지구 와테라스 공간구성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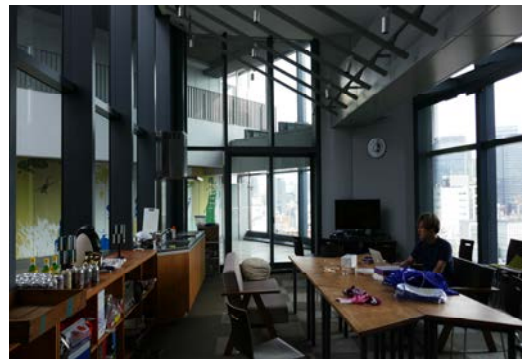
(출처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2017) 淡路町二丁目西部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 자료 참조)

#2_ 와테라스의 공간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아와지 에리아매니지먼트]

2007년 도시계획 결정이 시작되면서 아와지 지역 관리 및 공익적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사업초기부터 치요다구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활동 범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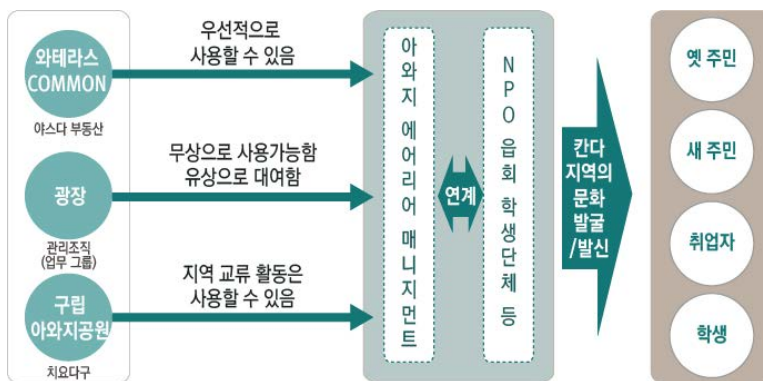
칸다지구 와테라스 내에는 레지던스, 오피스, 음식점, 커뮤니티시설(공부방, 서점 등), 학생기숙사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커뮤니티활동, 지역연계프로그램, 환경개선프로그램 등을 거주민, 직장인,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와테라스 내 공동시설은 공원, 광장 등 공공을 위해 조성된 시설 및 공간으로 지역 활동을 할 때 우선적으로 대여 및 임대가 가능하며 각각의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의 총괄은 아와지 에리아매니지먼트가 수행하고 있다.



[학생기숙사와 와테라스 내 학생 커뮤니티공간]

© 김민경

이들 공간 중 와테라스 내 학생기숙사는 만 17세~25세 지역 대학생들에게 기존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제공하여(월 65,000엔)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공유 공간이나 건물 주변의 관리와 유지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들 간의 대화·규칙 등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지역 활동을 학생과 연계하여 유치한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주거비의 인하는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생산층의 연령이 고령화 되는 실상에서 좀 더 젊은 층의 역할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의 구조]

(출처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2017) 淡路町二丁目西部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 자료 참조)

#3_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활동 참여 유도

칸다지구 와테라스 내 36개의 기숙사(20㎡)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8월기준 남학생 15명, 여학생 21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3~4년간 지속적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한 학생들의 경우 아와지지역 관리 학생 회원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와테라스 방재훈련 참가 및 다양한 지역활동에 참여하여 1일참여당 포인트로 환산하여 제공받아 운영되고 있다. (1일 참여=1P)

또한 와테라스 여름축제 등과 같은 와테라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워크 테라스 정원클럽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공원 및 플랜트박스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체험과 운영관리를 병행한 활동도 있다. 이 외에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되는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취재 등을 통해 홍보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와테라스 인근 지역의 활동 및 일회성 이벤트 등을 기획·참여하여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공간의 관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4_ 지역재생과 학생 참여 유도의 의의, 그리고 남겨진 과제

칸다지구 학생의 능력을 지역 자원으로 간주하고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실행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칸다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활동의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도가 있다. 학생기숙사 제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생연계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경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층의 활동과 아이디어로 지역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호혜적인 관계 형성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개선이다. 현재의 칸다지구 공용공간의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제공하는 활동비와 광장 대여료, 기금 후원, 지역회사 협찬 등이 대부분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간 1억 5천만원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수익구조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와테라스 내 입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사업발굴도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칸다지구 내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과 학생들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칸다지구 와테라스 사례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던 아와지지역에 학생들의 활력을 불어넣어 어르신과 청소년간의 교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칸다지구 와테라스 학생기숙사
거주 학생들]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칸다지구 와테라스 광장]

© 김민경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藤井 雄一(Fujii Yuichi) 인터뷰 내용 (17.8.29)을 바탕으로 작성

#영국 브릭스톤
#청소년 협동조합
#민관협력
#권역별 거점시설
#지역재생 프로젝트

07_Young Lambeth 협동조합이

함께하는 마을재생

영국 런던 램버스 브릭스톤지역

[지역 + 사업단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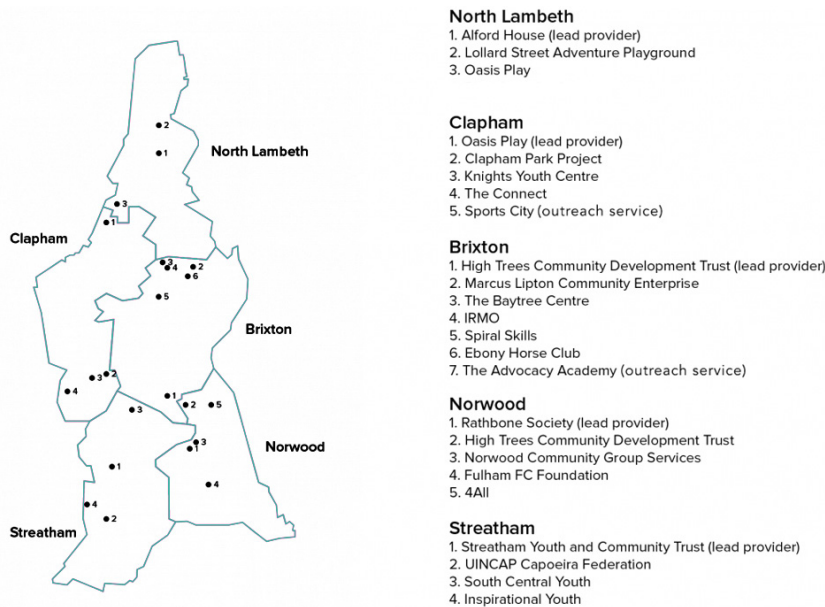
#1_ 지역의 재생을 위한 움직임, 'Future Brixton'

영국 템즈강 남쪽, 램버스 지역에 위치한 브릭스톤은 이주민이 많고 수도 런던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따라서 램버스 구청은 2009년부터 “퓨처 브릭스톤(Future Brixton)”이란 민관협력으로 이뤄진 도시재생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지역이 지닌 특수성과 주거, 환경문제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도출되는 의견들을 지역 예술인이 그림으로 담아 아카이브 형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워크숍 과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각각 다른 의견과 시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이런 과정 자체가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성과를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_ 지역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 유도, Young Lambeth Coop. 설립

젊은층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영국 브릭스톤 내의 다양한 주민조직 중 청소년 및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Young Lambeth Coop을 2013년도에 설립하였다. 5년 이상 램버스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 학업 등을 한 사람들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이 조직은 재단 초기, 2천명이 넘는 젊은이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사업계획 및 브랜딩을 포함한 주요 사업 파트에 참여하였고 2016년 10월 기준 7천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협동조합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약 3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활동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Young Lambeth Project는 램버스 지역을 5군데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조직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 다양한 지역사회 이벤트 및 프로젝트 참여 →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참여(animation, fashionista project, leadership Training etc)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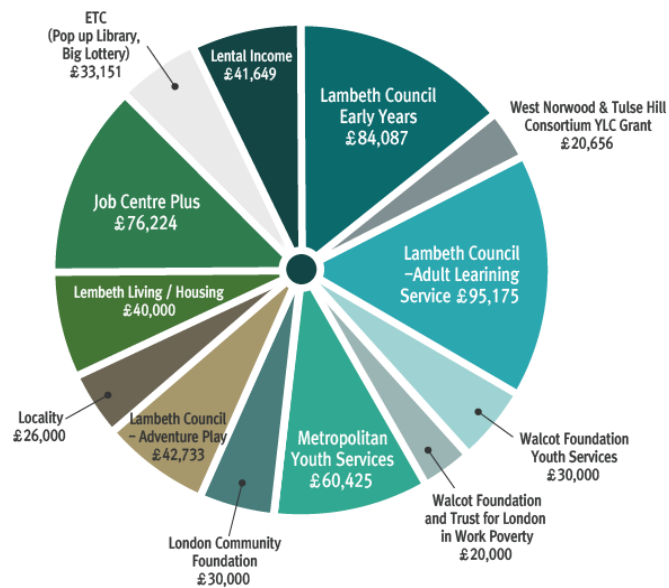
[램버스의 5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출처 : Young Lambeth Coop. 홈페이지 www.younglambethcoop.co.uk/local-youth-providers)

#3_ 공동체, 놀이, 교육, 생활서비스가 연계된 Local Youth Projects

Local Youth Project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세부사업 및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부분이 융·복합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놀이경험을 제공하는 Lollard Street Adventure Playground, come and play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인식과 잠재력을 배워나가는 All our youth work under one roof 등과 같은 교육적 목적의 프로젝트,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고 청소년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 프로젝트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 다양한 교육과 주제 등 프로그램 목적의식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과 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예산 및 기금 또는 사업추진을 통한 수익금, 후원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각 공간 및 조직에 대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단체와 협업하기도 하며 별도의 위원회와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특히 협동조합에 가입한 청소년들을 각각의 지역에서 시설 운영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운영 예산]
(출처 :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Annual Review 2015-2016)



[Streatham Youth and Community Trust]

© Young Lambeth Coop.

[High Tree 프로젝트]

© Young Lambeth Coop.

[클라팸 공원 프로젝트 (Clapham Park Project)]

클라팸 지역의 클라팸 파크 프로젝트는 2000년 클라팸 파크의 지역사회 뉴딜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 기반 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다. 램버스의 가장 불우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은 빈곤, 실직, 범죄로 오랫동안 소외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약 십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의 감독 하에 재생 프로그램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 종료(2011년) 이후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협의체인 CPP Board가 지역 내 자선활동을 지속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들은 '클라팸 파크 자전거 프로젝트'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직접 만들고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 기회 제공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_ Lead Provider 설정과 지역조직과의 연계

램버스 지역을 5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Local Youth Project는 각 구역마다 Lead Provider를 설정하여 거점시설 및 주체로서 각각의 사업과 지역 간의 상황에 따른 유기적 연계를 모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역별 Lead Provider는 Alford House, Oasis Play,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Rathbone Society, Streatham Youth and Community Trust로 각 지역별로 목표하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거점시설에서 추진되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조직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과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특히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에서 제공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2년 동안 550여명이 지원받았으며 이중 82%가 지역사회와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얻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응답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향후 취업을 결정하거나 본인의 진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전달하였다.

청소년과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와의 연계는 이렇듯 청소년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활성화됨에 따른 성취감과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램버스 지역의 Lead Provider

- (North Lambeth구역 Alford House) 청년 클럽(Youth Club)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8세~21세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전담팀(스태프, 자원봉사자 구성)이 관리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술, 음악 제작 및 직업교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
- (Clapham구역 [Oasis Play) 무료로 운영되는 안전한 모험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어드벤처 놀이 시설로서 어린이 자연정원(Children's Nature Garden), 카트 프로젝트(Karting Project) 및 어드벤처 놀이터 운영, 청소년의 심신 건강 향상 및 지식, 스킬, 영감 증진과 보다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공동체 발전 지원
- (Brixton구역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지역민의 사회·정서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서비스 제공
 - ① 고용, 교육 훈련 지원: 자원 봉사 및 취업 지원, 커뮤니티 학습 등의 공인된 교육과정 제공
 - ②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서비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계발 프로그램, 멘토링, 청소년 리더십 고취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③ 지역 사회 참여 및 개발: 개인 및 지역 사회 단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구축하여 지역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 (Nowood구역 Rathbone Society) 학습 장애와 자폐증 등의 장애를 지닌 청소년이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며 넓은 도서관 프로젝트, 댄스프로그램 등을 운영
- (Streatham구역 Streatham Youth and Community Trust) 교육 및 훈련, 개인 개발, 스포츠 및 예술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활동 등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단체

08_학생의, 학생을 위한 마을, 가나자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지역 + 사업 + 공간단위 연계]

#가나자와시

#학생의마찌가나자와

#공공의 적극적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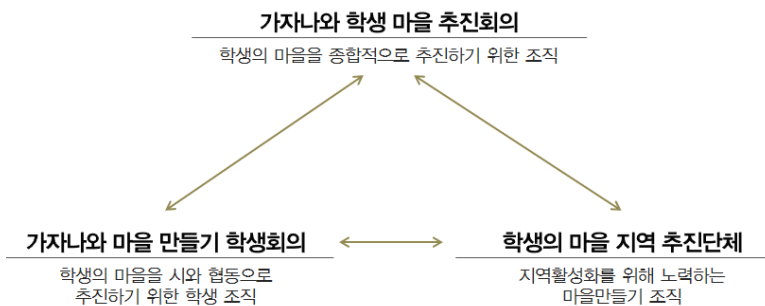
#학생의마찌시민교류관

#조례제정

#1_ 학생의 마을, 가나자와

2010년 4월 1일, 가나자와는 학생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일본 최초로 학생의 마을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는 학생과 시민이 서로 교류하고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 마을과의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첫 사례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학생과 시민, 지역, 기업 등 다양한 단체를 연결시켜 탄생한 『가나자와 학생마을 추진회의 위원회』(자치회, 부인회, 공민관 조직, 지역 단체, 고등교육 기관, 학생회 등)를 발족하고 『학생마을 지역추진단체』, 『가나자와마을 만들기 학생회의』 등 주요 추진체계를 만들어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였다.



[가나자와 학생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출처 : 金沢市 市民局市民協働推進課(2017), 「学生のまち、金沢」の推進について 제공자료 참조)



© 金沢学生のまち市民交流館
홈페이지

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학생회 조직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조직에 소속된 인원은 49명(8기)으로 5개의 지역대학과 1개의 전문학교가 참여해 학교의 경계를 넘어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내역을 SNS를 통해 아카이브 형식으로 기록·홍보를 하고 있다.

#2_ 작은 변화의 시작, 학생들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지역 내 학생 및 시민과의 교류,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생이 마을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며 협동에 의한 공동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의 마을, 가나자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농부의 집을 가나자와 시에서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2012년 9월26일 지역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인 ‘가나자와 시민교류관’을 개관하였다. ‘가나자와 시민교류관’은 회의실, 1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수용가능한 홀, 갤러리, 창고 등의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의 지역조직 및 단체에서 활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났다.



[‘학생의 마을 가나자와’ 프로젝트 활동내용]

- 1) 사업 추진의 중심이 되는 학생회 조직의 발족
- 2) 마을 만들기 학생회의 활동 추진
- 3) 학생의 활용거점 및 학생 단체들 간의 연계
- 4) 다양한 단체 연계 추진
- 5) 학생의 마을 가나자와를 전국에 알리기
- 6) 그 외 활동 추진

© 김민경



[2017년 마을 만들기 학생회 조직]

© 学生のまち、金沢 Facebook



[가나자와 학생의 시민교류관 내 지역학생 활동]

© 김민경

#3_ 가나자와에 활력의 숨을 불어넣다. OPEN CITY KANAZAWA

1) 학생 교류지도 ‘WAP’을 제작하다

가나자와 시내 중심 곳곳에 위치한 매력적인 장소를 마을 만들기 학생회의 멤버가 직접 발굴하고 취재함으로써 지역의 생생함과 색다른 이슈를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지역기반의 마을 알리기 활동이다. 학생 교류 지도 “WAP”은 ‘연결의 WA를 펼치자’라는 컨셉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이 주목하는 명소와 음식점의 개성적인 가게주인들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담아냄으로써 마을의 매력을 학생에서 학생으로 전하는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2016년 마을교류 지도 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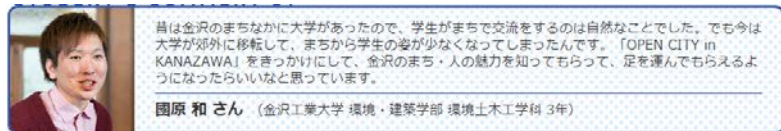
(출처 : ‘学生のまち,金沢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22050/gakusei/index.html>)

2) OPEN CITY in KANAZAWA

매년 봄에 열리는 「OPEN CITY in KANAZAWA. ~단 하루에 가나자와가 좋아진다」 프로젝트는 가나자와 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이 지역에 처음 거주하게 된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디를 돌아보면 좋을지’, ‘이 지역의 매력은 무엇인지’ 등 지역소개를 통해 향후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 알리기’프로젝트다. 가나자와의 매력적인 명소를 둘러보는 스터디 투어와 학생 간 교류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학생회 멤버의 안내로 진행된다.

스터디 투어코스는 ‘가나자와의 거리를 걸어보자’, ‘가나자와의 전통에 접해보자’라는 두 가지 주제의 코스와 함께 ‘Active Course(2 plan)’, ‘Challenge Course(2plan)’, 당일 참가가 가능한 Join Course 등 총 5가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시가

와 과자를 사용해 가나자와 시내를 재현하는 실내 이벤트와 학생단체간의 교류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마을 알리기의 메인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OPEN CITY in KANAZAWA 참가자]

(출처: 学生のまち、金沢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22050/gakusei/index.html>)

“...대학이 교외로 이전하고 마을에서 학생의 모습이 점차 사라졌으나, ‘OPEN CITY in KANAZAWA’를 계기로 가나자와 및 지역민의 매력을 알리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자와 공업대학교 3학년 재학생 쿠라하라 씨-

3) 지역에 다가서다. ‘지역 상점가와의 연계’

지역 상점가 부흥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학생회의 멤버들은 마을 시민 교류관 근처의 상점가의 여름축제 스탬프로 참가하여 지역 상인들과의 교류 및 마을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상점가 상인 및 지역에게 활력을 전달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또한 무대 이벤트를 기획하여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류하는 등 지역민을 넘어선 소통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과의 연계를 위하여 가나자와 학생 콜렉션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한시적으로 소셜 서비스를 개설하여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나자와 상점의 매력과 장점을 소개함으로써 젊은 계층 및 다양한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상점가 연계(도시풍경 축제) 참여 모습]

(출처 : 学生のまち,金沢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22050/gakusei/index.html>)

#4_ 소통 및 교류의 도움을 안겨준다_코디네이터

지역 마을 활성화의 거점 시설로 활용되는 마을 시민 교류관은 물리적 플랫폼 제공 외에도 마을 만들기 학생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활동 시 발생하는 궁금증과 주요 의견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들은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며 시민 활동, 정신 건강, 사회사업, 청소년 육성,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학생의 마치 가나자와’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p>[아오미 아스오]</p>  <p>NPO법인 이시카와 시민활동 네트워크 센터 대표이사 [전문분야: 시민활동, NPO]</p>	<p>[무라타 이즈미]</p>  <p>NPO 이카리 프로젝트 설립 가나자와시 협동을 추진하는 시민회 고문 [전문분야: 정신건강, 사회사업]</p>
<p>[니시데 켄세이]</p>  <p>가나자와 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들과 지역을 연결하는 단체 설립 [전문분야: 청소년 육성, 학생 지원]</p>	<p>[키타 마이]</p>  <p>프리랜서 편집 라이팅, 미디어 잡지 아트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 [전문분야: 홍보물 제작, 진로 상담]</p>

[가나자와 마을 시민 교류관 코디네이터]

(출처 : 金沢学生のまち市民交流館 コーディネータ 자료 참조, 재작성)

* 金沢市 「学生のまち,金沢」 담당자 光瑞 木下(Kozuki Kinoshita) 山本 駿也(Yamamoto syunya) 인터뷰 (17.8.31)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PART

04

동네청소원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을 꿈꾸다



01_동네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기본방향

앞선 장에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마을재생을 위한 활동 및 프로젝트와 청소년을 연계하여 추진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작게는 하나의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의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사례부터 마을재생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지역단위의 조직 및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추진하는 사례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다. 청소년과 마을재생의 연계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수익성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 조직이 독자성을 가지고 사업 등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데 현재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내의 경우 청소년과 마을재생을 연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역 현안에 맞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국내 마을재생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 또는 마을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단위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때 청소년의 참여는 초반 사업의 기획단계보다 사업 실행단계에서 조직화 및 참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단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별도 예산 및 사업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군산시, 일본의 가나자와시, 영국 브릭스틴과 같은 지역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 내 다양한 조직을 운영·지원하는 사례의 경우, 청소년의 관심과 능력에 따른 역할부여와 프로젝트를 수행 여부에 따라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의 다양한 조직 및 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함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청소년과 마을재생 관련 정책 현안 및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의 기본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 1) 마을재생과 연계한 지역시스템 구축
- 2) 지역의 재생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추진
- 3)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환경조성 및 지원방안 마련

[청소년과 마을재생 연계사례 종합]

구분	공간 (물리환경)	사업 (계획)	지역 (지역사회)	운영·관리 부문		조직 및 참여단계		
				운영관리주체	사업기간 및 예산	청소년 조직	참여 단계	
사례1	사업+ 지역단위 연계	황금시대 방송국 골목오락 실(예정)	도시재생 선도사업 연계	영주시 중,고교 교사 영주 FM, 영남방송, 공공디자인회사 등	청소년참여지원단 (교사,지역전문가) , 사업코디네이터	(2014~ 현재 지속) 국비지원+지자체 비+지역후원	도시참여단, 골목교육봉사 단,GAB학생 방송반	6단계
사례2	공간 +사업 단위 연계	영글카페 (예비사회 적기업)	-	(나사렛대학교, 포커스온, 아트큐브, 대학생서포터즈, 천안시,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영글컴퍼니 대표 +지역청소년	(2015~2017.6 종료) 사회적기업지원비용 + 카페 수익금 + 운영자 자비부담	불량소년, 포텐시아, 학교 밖 청소년모임	7~8 단계
사례3	사업단위 연계	-	새뜰마을 사업 연계	(제일고등학교 교사 영주시민신문, 도시재생지원센터)	새뜰마을사업 사업총괄코디네 이터	(2016.03~07 종료) 국비지원+크라우드펀 딩 지원비용	똥똥지 봉사단	5단계
사례4	공간+ 지역단위 연계	달그락 달그락	-	청소년위원회(지역위원회, (지역전문가)연구위원회(교수) 사회참여위원회(중고교교사), 진로위원회(소상공인), 참여위원회(활동가), 자문위원회(주부), 후원자	청소년자치연 구소+지역활 동가	(2015 ~ 현재 지속) 지역사회 후원 + (지자체비)	Aspect, 청소년 CEO, 눈맞춤 작가단, BODA,D.라 이트온,WaY, 달그락청소년 방송국	7~8 단계
사례5	사업단위 연계	-	서울시 희망지사 업 연계	성북구청,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스플’, 석관파출소, 지역주민	나눔과미래+ 지역활동가	(2016~ 현재 종료) 지자체비	석관레인저스	4~6 단계
사례6	공간+ 지역단위 연계	학생가숙사 커뮤니티 시설	도시재생 긴급정비 구역 개발사업	야스다부동산, 치요다구청, 아와지애리아메니지먼트즈, NPO, 지역주민	아와지애리아 메니지먼트	(2013~ 현재 지속) 운영기금, 광장대여료, 지역기업 후원	와테라스 학생회	6~7 단계
사례7	지역+ 사업+공간 단위 연계	Alford House,O asis Play 외	Future Brixton (민관협력)	램버스 구청,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 지역조직, CPP Board 등 주민협의체 지역기업, 지역주민 등	청(소)년 램버스 협동조합	(2013~ 현재 지속) 지자체비+지역기업 후원, 공간대여, 프로그램사업비, 운영기금 등	청(소)년 램버스 협동조합	6~8 단계
사례8	지역+공간 사업단위 연계	학생의 시민교류관	학생의 마찌 가나자와	학생의 마을지역 추진단체, 지역상인회, 주민공동체, 가나자와시, 지역기업	가나자와 학생마을 추진회의 +가나자와시	(2010~ 현재 지속) 지자체비+공간대여비 +지역기업후원+이벤 트 수익금	가나자와 마을만들기 학생회의	6~8 단계

02_기본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기본방향1 : 마을재생과 연계한 지역시스템 구축



[공간-사업-지역간의
연계를 통한 마을재생]

마을재생 사업추진의 지속성·전문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마을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지원 및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재생과 관련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의 행정관련 업무 및 마을재생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전략으로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지역 내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유후자산(빈 집, 빈 점포 등) 연계 및 활용
- +
- 2 마을 단위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 시행 및 지원 방안 마련
- +
- 3 마을 재생 관련 조례 제정 및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마을재생과 연계한 지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① 물리적 플랫폼 : 청소년의 복지서비스시설 및 지역 내 유휴자산과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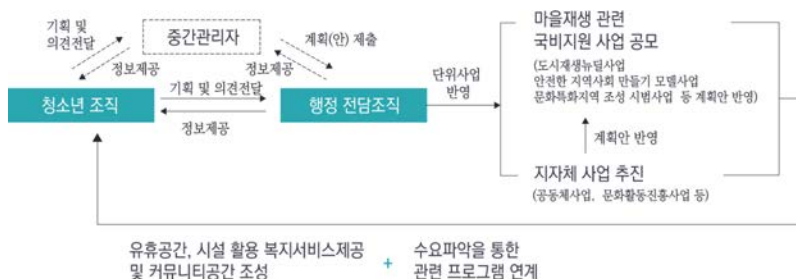
청소년 공동체가 조직화되고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필요한 공간수요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이 다수 조성되어있는 대도시, 수도권의 경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존의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시설을 연계 공급할 수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청소년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의 활용 용도를 조사하고 지역의 재생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조성 시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기능의 직접화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지역의 특성과 입지 등을 반영하여 시설의 조성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 집, 빈 점포 등 기존 지역의 유휴자산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저이용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또는 비영리조직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의 지자체가 매입하여 직접추진하거나 민간에 장기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다.



[청소년 공간플랫폼 조성(안)]

② 사업연계 : 마을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시행 및 지원방안 마련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또는 활동하기 위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위의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재생형, 일반근린형과 같은 마을재생 관련 국비지원 사업 내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마을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시행 체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을재생 사업의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내 포함되어 있는 단위사업 또는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지원 및 지역 내 창의력, 기술력 등을 활용한 마을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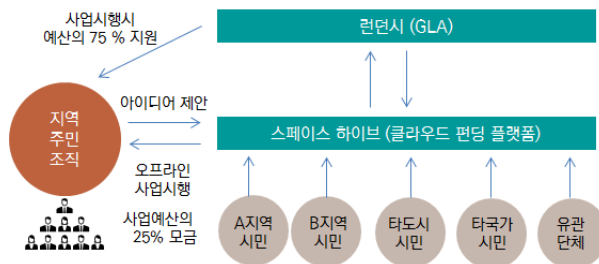
[청소년 참여 마을재생 계획 수립 전달 체계]

③ 지역 내 지원시스템 : 행정적 지원 (조례제정 등) 및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의 효율성 담보를 위하여 마을재생 관련 조례 제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해 행정 지원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가나자와시는 일본 내 지자체 최초로 마을재생의 참여주체를 지역 미래를 선도해 나갈 청소년이라 판단하고 지역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가나자와에 대한 학생의 마을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생과 시민, 학생과 마을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조례 제정의 의미는 지역단위의 청소년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공공의 재정지원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국내에서도 나타나는데 군산시의 경우 2016년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재생 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동네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사업실행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직·간접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 사업시행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런던시 크라우드펀딩 도시재생프로그램 플랫폼]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건축과 도시공간, vol.25-spring)

기본방향2 : 지역 재생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추진

[기반단계 : 청소년의 관심분야와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연계방안 고민]

① 사업기획 및 추진 기반 마련

재정여건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자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영주의 경우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국비지원 재생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통해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물리적 환경(공간마련) 조성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업초기 연계할 수 있는 정책사업, 지자체 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재생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사업 주체로서 성장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역량 등을 파악하고 성장시켜나가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의 종류는 청소년의 역량강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의 자립지원(p.26 참조)등 청소년 개개인의 소질 개발과 함께 건강한 사회 교류 형성을 지원, 사회문화적 활동강화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는 향후 마을재생 추진 시 주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②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연계 및 예산 마련

각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및 활동 추진 시 공간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연계되어 있다. 새뜰마을사업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하여 추진한 영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기획력과 홍보, 사업추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기존의 청소년 공동체를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 부재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다음 활동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공간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 간의 결속력을 높여주고 다음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다져진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공간은 반드시 커뮤니티 센터의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학생기숙사,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공간, 카페 등과 같은 수익시설(점포), 쉼어 하우스, 복지시설, 도서관, 오락시설(연습실 등), 창고 등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단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젝트 추진체계·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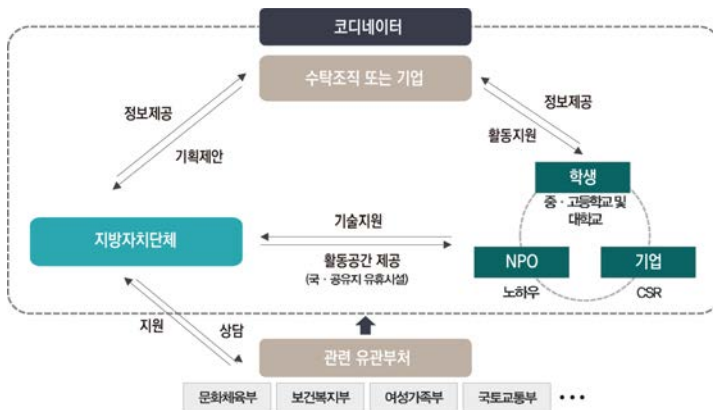
③ 관련부처,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은 성인과와 관계맺기 강화에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세대와의 관계 확장은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마을재생의 분야에서는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중요한 요소이다. 다 주체간의 협력은 각자가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과정이 생기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심어지게 될 수 있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가 다양한 전문가 및 단체들을 통해 관심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사회 역시 청소년들이 주체로 활동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좀 더 유연한 사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사례별 청소년조직과 지역사회의 연계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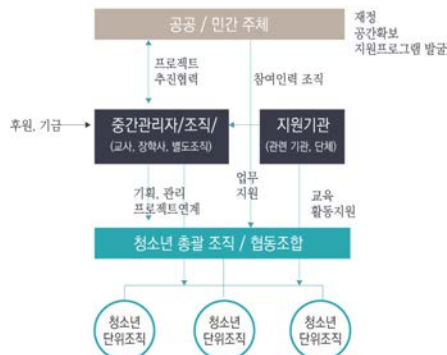
마을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유형을 제공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주민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마을 재생과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특성과 전문성, 활동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이 체계에는 지역의 주민, 특히 청소년 등과 같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활동에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지역 활동과 연계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청소년 마을재생을 위한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④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을 관리·연계해줄 관리자(성인) 및 조직의 여부

청소년들이 마을재생의 핵심주체로서 인식되기 어려웠던 점은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동아리 정도의 모임을 조직하는 것 이상의 공동체를 조직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과 시설·공간에 대한 운영,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사업 연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자 성격의 관리자 또는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례1 청소년의 황금시대 사례처럼 교사, 지역의 전문가,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청소년과 마을재생을 연계하는 지역에서는 영국 램버스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청소년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이 지역을 크게 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 각 생활권 단위의 조직마다 거점시설을 두고 공간 및 활동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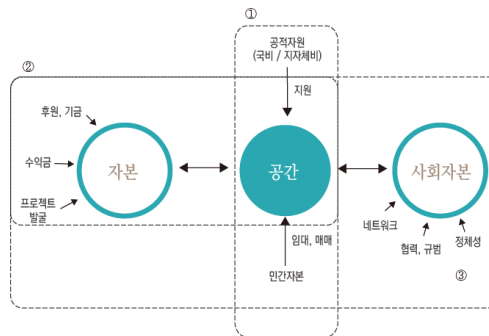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안)]

[지속단계 : 지속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참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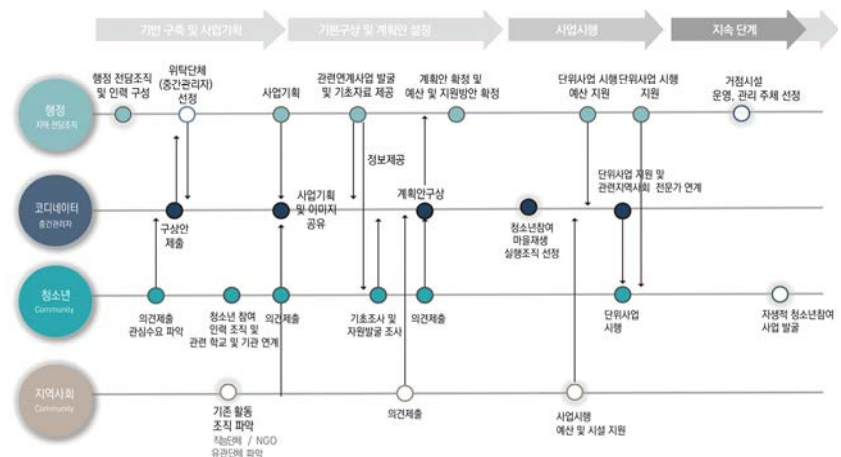
⑤ 운영예산 마련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

단기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①번과 같이 국비 또는 지자체비, 비영리 조직 등의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②번과 같이 별도의 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간대여, 카페운영방안 등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수익금 분배를 통해 운영·관리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거나 지역사회의 후원, 기금의 활용 또는 공동체, 문화·예술, 청소년 활동 등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공간조성 및 운영의 필요요소]

하지만 결국 청소년 조직 및 공동체가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공동체의 지역사회 정체성을 규정하고 청소년 조직, 청소년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 내에 청소년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 및 장치와 지역사회의 관심 및 지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모델을 구축할 때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중간관리자-청소년-지역사회 연계 사업추진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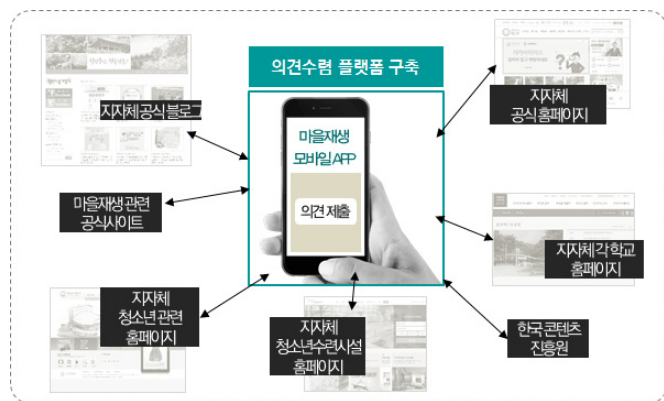
기본방향3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환경조성 및 지원방안 마련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마을재생은 선례가 많지 않아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국가,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청소년들을 조직화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자산 발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조직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숙사와 같은 공간을 제공받아 공간관리·지역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례의 경우 공익적 활동 보다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을 둔 활동 및 프로그램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청소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진로와 관심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 시 지역 청소년의 관심과 진로탐구를 반영하여 지역이 마을재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한다면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재생에 민간주체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안전망과 체제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청소년을 주체로 한 활동이 문화·예술, 지역이벤트 등에 치우쳐 있었다면 다양한 동네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 자신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SNS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견수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주요 유관기관 및 청소년 관련 시설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플랫폼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개진할 수 있도록 연동하여 청소년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정책 및 지역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 참고하세요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기부터 경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경험들을 토대로 청·장년층이 되어서도 지역 내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 등 고용의 기회와 경제적 부문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문화·복지 등 어메니티 등이 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질 그렌트(2014)는 지역의 거주와 이동에 대한 요인으로 과거의 경험과 고용의 기회, 지역적 속성, 경제적 특성, 어메니티 선호 등이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만족과 향후 이동성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경험에서 지역과의 애착 및 유대관계 형성은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시기부터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마을재생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애착심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복지·환경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환경조성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03_나가며

동네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대상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을재를 이끄는 한명의 참여주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관점 전환, 인식의 전환, 실천방안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 그리고 마을이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놀이터이자 미래를 고민하는 실험실로서 작용될 때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과정이 축적되어 지역의 전문가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 축제 등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동네청소년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시스템 내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지역이 향하는 재생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초반부터 기획·설정하여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마을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의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행정 등과 조율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사업 등을 기획하여 제한할 수 있는 중간플랫폼(SNS, 조직, 시설, 인력 등)의 구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의 정책, 청년의 일자리,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향하는 방향, 젊은층의 인구감소 등 지역, 사회적 현안 및 문제 등과 함께 청소년과 마을재생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마을재생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적게는 1년 뒤면 청년이 되고 이후 장년이 되어 어딘가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며 살기도, 어느 한곳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사회는 눈높이를 낮추던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관심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연습해 보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지금의 청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지역의 재생현장과 연계하여 본인의 능력을 시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며 이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을재생현장의 틀 안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으며 원하는 프로젝트 및 일자리를 직접 기획해 보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지역 내 청년,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 또는 구 단위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청소년들을 참여하여 문화, 관광, 복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프로젝트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교육프로그램은 활동과 해당업무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직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전달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관련 전문가,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산업종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력 및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전달이 필요하다.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청년의 유출이 도시의 주요한 쇠퇴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마을과의 추억을 쌓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을재생 현장과 연계함으로 지역의 애착심 형성과 동시에 청년이 되었을 때 지역에 머물러 지역의 특성과 산업 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이들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을 꿈꿔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강가영, 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pp97-123
- 강현주, 신인순(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2(9) pp25-48
- 김건(2017) 런던, 클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건축과 도시공간, vol.25-spring
- 권일남, 최창욱(2011).「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태희(2016) 청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안양 : 국토연구원
- 박가나(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6(10) pp273-306
- 서수정 외 6인(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정책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신효진, 신종진(2003) 청소년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과 향후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pp117-126
- 마강래(2017) 지방도시살생부'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고양 : 개마고원
- 아이바신, 민범식 역(2017) 도시접어들기: 인구감소시대를 디자인하는 도시계획, 세종 : 국토연구원
- 여성가족부(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유성렬, 최창욱(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해섭, 김세광(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진은애, 김동호, 박희종(2016) 주거지재생과 마을공동체,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no.411 pp3-23,
- 질그랜드, 오은주 역 (2014) 창조도시를 위한 인재찾기, 안양 : 국토연구원
- 최인수(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은영, 김미강(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no.43, pp95-124
- Suzanne Fitzpatrick et al.(2000) Youth involvement in urban regeneration : Hard lessons, future directions, Policy & Politics, vol28(4) pp493-509
- Roger Hart(1997) Children's Participa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th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Earthscan; UK
- Jacquelynne Eccle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기타자료)

- 金沢市 市民局市民協働推進課(2017) 「学生のまち、金沢」の推進について. 제공자료
- 국토교통부(2013), 함께하는 희망, 도시재생(홍보물), 국토교통부
- 반영선(2017)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마을재생세미나 발표자료(17.4.24)
- 淡路エリアマネジメント (2017) 淡路町二丁目西部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 제공자료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여성가족부
- 유병준(2017) "마을재생의 새로운 활력, 동네청소년" 마을재생세미나 발표자료 (17.4.24)
- 이규식(2017) '청소년이 참여하는 후생시장 도시재생'영주시청소년도시참여지원단 발표자료

- 정건희(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방안 및 추진 전략' 세미나자료집
- 송파구 보도자료 (2016.5.2.) '2016년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16개 단체 선정·지원
- 행정자치부(2017) 호남권「공동체지역 네트워크 포럼」자료집 , 행정자치부
- 2014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2016 도시재생 일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2016) High Trees Community Development Trust Annual Review report 2015-2016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0), Creative Placemaking,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linlove2>
- 강원도민일보 2010.07.22., <http://www.kado.net/news/articlePrint.html?ldxno=473772>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UNICEF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청소년자치연구소 페이스북 <http://blog.daum.net/babogh>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한국과학창의재단 언론홍보 페이지(유니세프 행복지수 모델 5개 중 주관적 행복 부분 조사 결과)
https://www.kofac.re.kr/?page_id=11284&pageid=1&mod=list&target=&keyword=%ED%96%89%EB%B3%B5%EC%A7%80%EC%88%98
- Alford House 홈페이지 <http://www.alfordhouse.org.uk>
- Claphampark Project 홈페이지 <http://claphampark.org.uk/projects-activities/youth>
- Rathbone Society 홈페이지 <http://rathbonesociety.org.uk>
- Young Lambeth Coop. 홈페이지 <http://www.younglambethcoop.co.uk>
- Y-Plan 홈페이지 <http://y-plan.berkeley.edu/what-is-y-plan>
- Y-Plan Richmond 홈페이지 <http://y-plan.berkeley.edu/richmond>
- 金沢学生のまち市民交流館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22050/shiminkouryukan/>
- 学生のまち, 金沢 홈페이지 <http://www4.city.kanazawa.lg.jp/22050/gakusei/index.html>
- 学生のまち, 金沢 Facebook <http://www.facebook.com/knzwgakuseikaigi/>
- ワテラス 홈페이지 <http://www.waterras.com>

동네청소원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지은이	박성남, 김민경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7.12.26
발행	2017.12.3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 417 9600
팩스	044 417 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비매품, ISBN 979-11-5659-160-3

※ 이 책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